

<내부자료>

우리나라의 가구변동과 그 전망

199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례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가구의 정의와 작업의 범위	3
제 3 장 가구규모와 가구구조의 변화	7
제 4 장 가구수의 추계	26
제 5 장 요약 및 제언	42
인용 및 참고문헌	45
부표	47

제 1 장 서론

가족을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사회제도로 보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가족이 오랫동안 사회과학자들의 주요 분석대상이 되어왔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가족(혹은 가구)규모는 어떠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시대가 바뀔 때 따라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변화추세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은 사회과학자는 물론 한 국가를 경영하는 정책결정자에게 지대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자들이 가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1960년대 이후부터이다. 그나마 인구연구의 다른 분야 즉,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에 비해 아직도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Burch, 1979) 일찌기 UN의 인구전문가들도 결혼력을 포함하여 가족과 가구에 관한 연구가 인구학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라고 지적한 바 있다. (UN, 1973) 가족에 관한 인구학적 연구의 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다루는 주제가 매우 복잡한데다가 개념정의의 표준화 수준과 가구와 가족을 분석하는 절차와 모형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Bongaarts, 1983)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연구가 그 터를 잡게 된 계기는 정부가 제 1차 경제개발을 수립할 1961년 당시 인구문제의 해결, 더 정확히 말해서 폭발적인 인구증가의 억제 없이는 개발의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제 1차 경제개발계획에 가족계획사업을 포함시킨데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관이 인구증가를 억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과 이해를 같이하고 이에 대해 넉넉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게되어 인구연구에 일종의 붐이 일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연구는 다분히 실용적이고 정책적이었으며 그 내용면에서 출산력 중심적이었고, 사망력이나 인구이동 특히 가구(가족)과 결혼에 관한 인구학적인 연구는 거의 불모의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에 관한 인구학적 연구는 주로 초혼연령이 출산력의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에 초점이 모아졌고 가구에 관한 연구로는 몇차례 가구수추계가 시도된 정도이며 그나마 정책결정의 자료로서 제몫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력이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감소하고 인구성장의 정지, 어쩌면 인구감소를 눈앞에 두게 되어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 그

전략을 전면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계획의 성공이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맞물려 가족구조 혹은 가구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가족의 생애주기와 그 안에서 이뤄지는 생활양식, 그리고 가족가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 변화를 가져다 주리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력 감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몇 안되는 실증적 연구 중 두개가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의 가족생활주기 조사』(1986)와 『한국가족기능 연구조사』(1989)이다. 이 두 조사는 매우 의욕적인 시도로서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지만 두 조사의 명칭이 상이한 것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두 조사간 연속성 혹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질문항목의 구성이 지나야 할 이론적 체계성이 결여되어 그간의 가족구조의 변화와 그 방향을 분명하게 그려내고 그 문제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느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와 가족의 변화와 그 변화가 안고있는 문제를 절실하게 드러내는데는 표본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의 현학적인 분석도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지만, 그 신뢰성과 타당성에 있어 표본조사의 결과에 비할바 없는 인구센서스 결과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장래의 전망을 보이는 것도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본다. 본 작업은 이와 같은 근거와 당위성을 가지고 출발하여 우리나라 가구변동의 추이를 일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변화를 내다볼 수 있는 창으로서 몇가지 지표를 제시하여 종국적으로 국가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 장 가구의 정의와 작업의 범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사회제도로서 가족은 오랫동안 사회과학자들, 특히 인류학과 사회학자들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인구학은 당연히 가족의 양적인 측면 즉, 규모와 구성과 및 그 변동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보다는 가구를 연구대상 혹은 연구단위로 삼는다. 따라서 이 연구작업의 목적과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와 이에 관련된 몇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실상 개인을 단위로 하여 다루는 일반 인구학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들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구나 가족에 관하여서는 아직도 용어의 일치된 개념정의를 되어 있지않은 상태다. 이 문제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에 관한 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청에서는 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용어로서는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구와 가족이라는 말을 혼용하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가구 친족을 지칭하는데 「집」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용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는 여러나라의 통계자료를 비교할 때 골치아픈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인구국의 가구에 관한 정의와 우리나라에서의 가구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진다면 두 나라의 가구수 및 평균가구원수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용어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통계작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가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는 주택보급율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의 여하에 따라서 주택보급율이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UN에서는 이와 같은 혼동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가구와 가족과 핵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에 따라 자료를 모으고 통계를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United Nations, 1969)

UN에 따르면 가구는 『취사와 기타 기본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단위』이다. (UN 1958, 4쪽) 가구원은 보통 벌어들인 소득을 일단 한데 모아 지출한다. 기본적인 생활에는 주거생활이 포함되므로 이 정의에 따르면 가구원은 당연히 동일한 거처에 거주해야 한다. 또 이 정의에서는 1인 가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집을 나와 혼자 자취하고 있는 학생도 한 가구를 구성하는 셈이다. 가구원은 상호간 반드시 어떤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 혈연적으로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모여 한 가구를 이룰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가족은 『결혼과 혈연 혹은 입양을 통해 일정한 정도 이상의 관계를 맺고있는 가구원』을 말한다.

(UN 1958, 5쪽) 이 정의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가구가 한 가족을 이룰 수 없지만 한 가족에 두 가구가 있을 수는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가족이 두 곳에 갈라서 사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또 가구는 한 사람으로 이뤄지는 경우 즉 1인가구가 가능하지만 1인가족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족이 가족인 것의 요체는 그 성원 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위의 정의에 포함되어있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 가족이 처해 있는 사회의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가구가 경제학적, 인구학적 연구의 단위가 된다면 가족은 사회학적, 인류학적 연구의 단위가 된다. 가족이라는 말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로서 친족(kin)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일정범위 이내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것 역시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친족은 가족이나 개인으로 이뤄지는 집단으로 보는 것이 무방할 것 같다. 학자들의 취하는 입장과 방법론상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 가족에 관하여 다루는 것은 주로 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이고 이 관계가 사회전체구조와 그 변화에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구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할 때 사회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가족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가 요청되는 것이다. UN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센서스에 가구원 간의 관계 즉 가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센서스 조사항목에 각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넣게 되면 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가구 안에 비혈연 가구원이 있는가? 가구안에 몇세대의 가구원이 함께 살고 있는가? 가구안에 결혼한 부부가 몇 있는가? 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구구조의 변모를 시기적으로 그려내고 여기서부터 장래의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UN은 인류학과 사회학에서 자주 운위되는 가족형태로서 핵가족(nuclear family)과 확대가족(extended family)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UN, 1973, chap.I) 즉 핵가족은 결혼한 한 부부 혹은 부부 중 한사람과 그(들)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고 확대가족은 이 핵가족이 두개 이상 모여서 이뤄진 가족을 말한다. 확대가족 중에 동일 세대에 속한 가구원 중에 결혼한 부부(conjugal pair, couple) -혹은 그 중 한사람-가 없는, 다시 말해서 한 세대에 결혼한 부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족을 직계가족(stem family)이라고 한다. 또 확대가족을 구성하는 핵가족을 가족핵(family nucleus)이라고 하여 독립된 가구로서의 핵가족과 구분하고 있다. 이상 UN의 정의와 구분법이 세계 모든 나라에 적합하고 받아들여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실제로 어떤

사회에서는 UN의 분류를 따르게 되면 적합한 통계를 작성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구와 가족의 형성과정이나 형태가 비교적 단조롭기 때문에 UN의 정의를 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고 각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파악하면 가구와 가족의 구조에 관하여 비교적 풍부한 정보를 얻어내고 나아가 의미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센서스가 처음부터 동일한 정의아래 가구사항이 집계되고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제표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용어에 대한 분명한 정의아래 비교적 자세히 센서스 결과를 보고한 것은 1966년 부터이다. 아마도 그 이후의 것은 1966년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 약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1966년도 센서스 보고서에 수록된 용어의 정의 중 가구에 관한 것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기획원, 1969, pp 6-7)

가구 : 가구나 함은 1인(독신자) 또는 수인이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독립적인 모임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두가지로 구분한다.

보통가구 : 가구주를 중심으로 거래붙이가 한데 모여 살거나 또는 1 가구를 형성하여 사는 독신자 가구를 말한다. 즉 1) 가구주와 그 가족만이 살고있는 집, 2) 가구주 및 그 가족과 그 밖의 사람 (하숙생, 동거인, 식모, 며슴, 점원 등), 3) 혼자 살림하는 단독가구. 단, 독립된 부엌시설을 갖춘 살림 집.

준가구 : 보통가구 이외에 전혀 혈연관계(거래붙이)가 없는 사람끼리 살고 있는 가구.

1인 준가구 : 보통가구에 주거를 같이하나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신자로서 부엌시설이 없는 가구

기타 준가구 : 보통가구에 거주하는 영업사용인 중 6인 이상의 집단, 또는 합숙소, 기숙사, 병원, 요양원 등의 합숙인 및 입원환자와 거주가 일정치 않은 연예인, 걸인 등. 단 병원, 양로원의 입원환자 또는 특수사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에 달한 자 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통가구의 가구분류

1. 보통가구의 구성 : 보통가구를 그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친족가구 : 가구주와 친족관계가 있는 가구원이 살고 있는 가구.

B. 비친족가구 : 가구주와 동거인, 가사사용인 또는 영업사용인이 같이 사는 가구. 또한 여기에서 가구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가구원이란 조사표의 가구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로 부터 형족 6촌의 범위 안에 있는 자와 그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양자, 양부모 등은 자식이나 부모와 같이 친족

으로 하였다.

C. 단독가구 : 독신자만이 사는 가구.

2. 친족가구의 가족구성 : 1에서 말한 보통가구의 가구구성 중 친족가구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주와 그 친족의 친족관계에 따라서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등으로 분류한다.

1980년부터 보통가구에 대응하는 가구형태로서 준가구 대신에 집단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 외에는 이상과 같은 가구의 정의와 분류는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서 가구변동의 분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다만 가구주율의 분석에서는 가구의 특성별 연령별 가구주율이 필수적인데, 차츰 개선되어 오기는 했지만 만족할 만큼 자세하게 집계하여 표를 제시해 주고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1985년 센서스 보고서부터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자세한 집계표를 수록하고 있고 앞으로 그 자세한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면의 연구작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작업에서는 주어진 자료 곧 센서스 보고서에 게재된 자료를 활용하면서 가구수, 가구와 가구주의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장래의 가구수와 구조를 추계하고자 한다.

제 3 장 가구규모와 가구구조의 변동

우리나라의 총가구수는 1960년의 4,362,953에서 1990년의 11,202,640로 무려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에 인구가 약 1.7배로 늘어난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가구수가 인구수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평균가구원수 즉 가구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가구수의 증가분과 인구의 증가분의 차이는 가구규모의 축소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구규모의 축소를 우리는 인구학적인 요인과 이 인구학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한 것으로 갈라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가구구조의 변화는 가구규모의 변화에 선행한다. 다시 말해서 가구구조가 어떻게 인구학적인 제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가를 알면 저절로 가구규모의 변화를 알게되고 가구수의 변화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가구구조는 사회변동과 -심지어는 문화변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가구구조의 변화는 대부분 가족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이 가족구조의 변화라는 것이 사회경제적 변동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간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이 변화라는 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물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널리 퍼져 있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변화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 이상의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구규모의 변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1. 가구수 및 평균가구원수의 변화

<표 I>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가구수는 인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증가율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가구증가율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60-66년간의 인구증가율과 가구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각각 2.71 퍼센트와 2.76 퍼센트로서 가구의 증가가 거의 인구증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6년 이후에는 가구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왔다.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부터 얼마나 격심한 사회변동을 겪어 왔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 시기부터 산업화에 들어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처럼 인구 증가에 비해 가구증가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구의 분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업인구의 비중이 줄고 도시에 거주하는 봉급생활자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이들 중에 독신자와 소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물론 자녀수의 감소 즉 가족수 감소의 기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표 I. 가구수와 평균가구원수 및 가구와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1960-90

구분 \ 연도	1960 ⁽¹⁾	1966 ⁽¹⁾	1970 ⁽¹⁾	1975 ⁽¹⁾	1880 ⁽¹⁾	1985 ⁽¹⁾	1990 ⁽²⁾
보통가구수	4362953	5151610	5792983	6647778	7969201	9571361	11357160
평균가구원수	5.56	5.43	5.18	5.13	4.62	4.16	3.77
준가구집단가구	15020	11300	63918	106479	23767	22431	19239
전체가구수	4377973	5132910	5855901	6754257	7992968	9593792	11376399
연평균가구증가율		2.76	3.35	2.89	3.37	3.72	3.47
연평균인구증가율		2.71	1.90	1.98	1.50	1.57	1.00

자료 :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각 센서스 연도별 보고서
 (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잠정보고서』, 1991

사회변동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기보다는 한 부문에서 시작되어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학적 법칙 중 하나이다. 가구의 분화현상도 그 예외는 아니다. 즉 도시부문에서 이 가구분화가 먼저 일어나고 농촌지역도 뒤따라가는 현상을 보여준다. (<표 II> 참조) 이것은 농림업보다는 비교적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인력을 요구하는 도시지역의 산업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이 표에서 1990년에는 시부나 군부 다 같이 평균가구원수가 3.8명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농촌의 젊은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게 됨에 따라 농촌가구가 축소되는 현상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인구가동이 가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농촌지역의 출산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추세로 농촌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게 된다면 농촌의 평균가구원수가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더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

표 II. 시·군부별 평균가구원수의 변화, 1966-1990

지역 \ 연도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시부	5.1	4.9	4.8	4.4	4.0	3.8
군부	5.7	5.5	5.3	4.7	4.2	3.8

자료 : 표 I 과 같음.

평균가구원수의 증감은 가구원 규모별 분포의 변화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가구

규모별 분포의 변화는 가족구조 변화의 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표 III>은 1960년 이후 최근까지의 가구규모별 가구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우리는 7인 이상의 대가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반대로 1인가구(단독가구)가 그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가족화는 그 초기에는 가족제도 자체의 변화과정이라기 보다는 첫째 출생자녀수의 감소에 의한 가족의 축소와 둘째 자녀의 취업, 취학을 위한 분가(별거)의 증가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오래 동안 지속됨에 따라 결국은 가족제도 자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력과 인구이동이라는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가족제도의 변화가 변화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가족성원 간의 관계가 가족원의 역할 등이 1960년대와 현재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는데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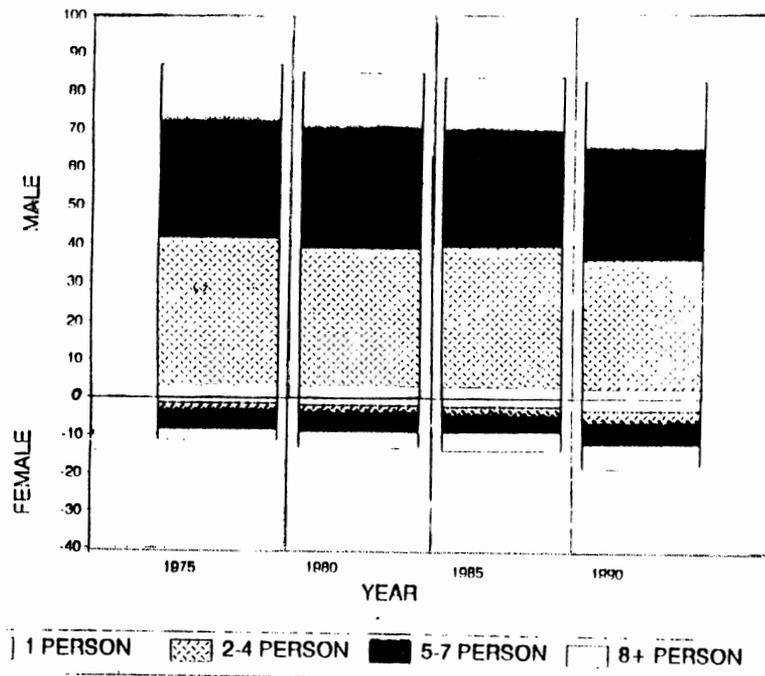
표 III. 규모별 가구분포의 변화, 1960-1990

크기 \ 연도	1960	1966	1970	1975	1880	1985	1990
1	2.3	3.6	3.7	4.2	4.8	6.9	11.7
2	7.1	7.7	9.3	8.3	10.5	12.3	17.9
3	11.8	11.5	12.8	12.3	14.5	16.5	19.0
4	14.7	13.9	15.0	16.1	20.3	25.3	26.4
5	15.9	15.2	17.0	18.3	20.0	19.5	14.9
6	15.3	15.4	16.3	16.6	14.7	12.4	6.7
7	12.7	13.1	12.2	11.7	9.7	4.2	2.4
8	8.9	9.1	7.3	7.7	3.0	1.9	0.8
9	5.3	5.9	3.6	2.5	1.5	0.7	0.2
10+	6.0	4.6	2.6	2.3	1.0	0.4	0.1

자료 : 최 봉호 (1990), 262쪽

1975년 이후의 가구주의 성별 가구규모별 가구수의 분포를 보면 <도 I>과 같다. 여기서 여자가 가구주인 가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뚜렷한 결향을 볼 수 있고, 남자가 가구주인 경우 단독가구의 비중이 거의 일정한데 비해 여자 단독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85년 이전까지는 여자의 단독가구보다는 남자의 단독가구가 많았는데 1990에는 여자 단독가구의 수가 남자 단독가구보다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여자의 단독가구가 많아지는 것은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가 여자의 경제활동기회가 넓어짐에 따라 단신으로 집을 떠나사는 경우가 많아진 것과 둘째가 배우자와 사별한 여자 고령자가 전에 처럼 자녀의 가구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단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앞의 경우 보다는 뒤의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I. 규모별 가구분포의 변화, 1960-1990



2. 가구구조의 변화

가구 중에서 가구원이 모두 혈연, 결혼, 입양으로 맺어져 있을 때, 가족가구(family household)라고 하는데,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가구가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보통가구(ordinary household)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가족구조를 가구구조라는 용어 대신으로 사용하기는 하나 가족구조는 가구구조 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가족간 권위와 권력의 구조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가족의 형태(type)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분류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나 핵가족의 수, 비혈연가족의 존재여부, 대외적인 대표권의 소재, 의사결정권의 소재, 가족생활 주기상의 위치, 재산 상속의 계통 등이 있는데 이중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와 핵가족의 수, 그리고 비혈연가구원의 존재여부등은 센서스 조사내용에 들어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외형적이기는 하지만 의미있는 가족형태의 분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세대수와 가구주를 비롯한 다른 가구원의 연령과 결혼상태를 따져 본다면 가족생애주기 상 어떤 가구인지 쉽게 판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센서스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 때문에 본격적인 가족형태의 재분류와 이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양상을 분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작업은 차후의 연구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상호배타적인 분류가 가능한 두가지 기준(세대의 수와 비혈연가구원의 존재여부)에 따라 분류된 우리나라 가구형태의 분포변화를 통해 가족구조 변화의 일단을 살

피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센서스에서 가구분류가 동일한 분류기준에 따라 동일한 수준에서 일관성있게 이뤄지지 못해왔기 때문에 1960년대 이후의 가구 혹은 가족의 형태나 구조의 변화를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1960년에는 가구에 포함되는 세대수별로 분류하는 것으로 그쳤다. 단독 가구도 1세대 가구에 포함시켜 표를 작성하고 있고 비혈연가구는 일반가구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1966년에는 일반가구를 혈연가구, 비혈연가구, 단독가구로 나누고 이 혈연가구에서 비혈연가구원을 포함한하고 있는 가구를 기타의 친족가구로 따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혈연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집단가구, 준가구가 아닌 경우를 비친족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1970년에는 다시 1960년과 같은 방식으로 집계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1975년에는 비혈연가구원을 포함한 가구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1980년과 1985년에는 1966년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여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1966년과 다른점은 비혈연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분류상의 일관성 결여를 무릅쓰고 세대수별 가구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 <표.IV>이다. 이 표에서 핵가족은 UN의 정의에 따라 부부가구와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구, 편부모와 그 자녀로 이뤄진 가구를 핵가족으로 보고 집계한 것이다.

표 IV. 세대수별 일반가구수 및 핵가족수의 변화, 1960-1985

구분\년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전체	4370599	5057030	5576277	6647778	7969201	9571361
1세대가구	325909	254010	376468	446826	658416	915529
2세대가구	2798160	3316590	3905660	4580227	5457340	6412196
3+세대가구	1246107	1178700	1294149	1339318	1353745	1422830
기타가구	-	127480	-	-	-	-
비혈연가구	-	33920	-	-	116957	159885
단독가구	-	141280	-	281007	382743	660941
핵가족	-	2980840	3988641	4499221	5445321	6586227

* 미상가구 252 포함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각 센서스년도별 보고서

이 표에서 단독가구를 포함한 1세대 가구가 1960년 이후 30년간 거의 5배로 증가하여 전체 일반가구가 약 2.2배 증가한 것과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 2세대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최근에 이르러 전체가구수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그 절대치로 보아서는 3세대 가구수도 줄지는 않았지만 그 증가속도가 전체가구수의 그것에 훨씬 하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단독가구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가족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증가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특히 1966년부터 1970년에 이르는 기간중에 1.34배나 증가한 것과 1970년부터 1975년에 이르는 기간 중에는 1.13배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좀 이례적이다. 분류상의 일관성이 확실하다면 이 증가속도의 굴곡이 이 기간중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특히 그에 따른 인구이동 및 도시집중이라는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상의 변화를 더 분명히 살펴보기 위해 각 연도별 세대수별 가구의 분포와 핵가족비율을 살펴보면 <표 V>와 같다.

이 표 중 1966에는 기타가구가 제외되었으므로 다른 년도에 비해 1세대 가구의 비율이 약간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또 1960년도의 1세대 가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단독가구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체적으로 그 구성비가 1세대 가구에서는 계속 늘어나 왔고 2세대 가구에서는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3세대 이상의 가구에서는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1960년과 1970년의 수치를 알 수 없지만 단독가구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오히려 3세대 가구보다 더 많아지게 된 것을 보여준다. (<도 II> 참조)

표 V. 일반가구의 세대수별 분포 및 핵가족비율의 변화, 1960-19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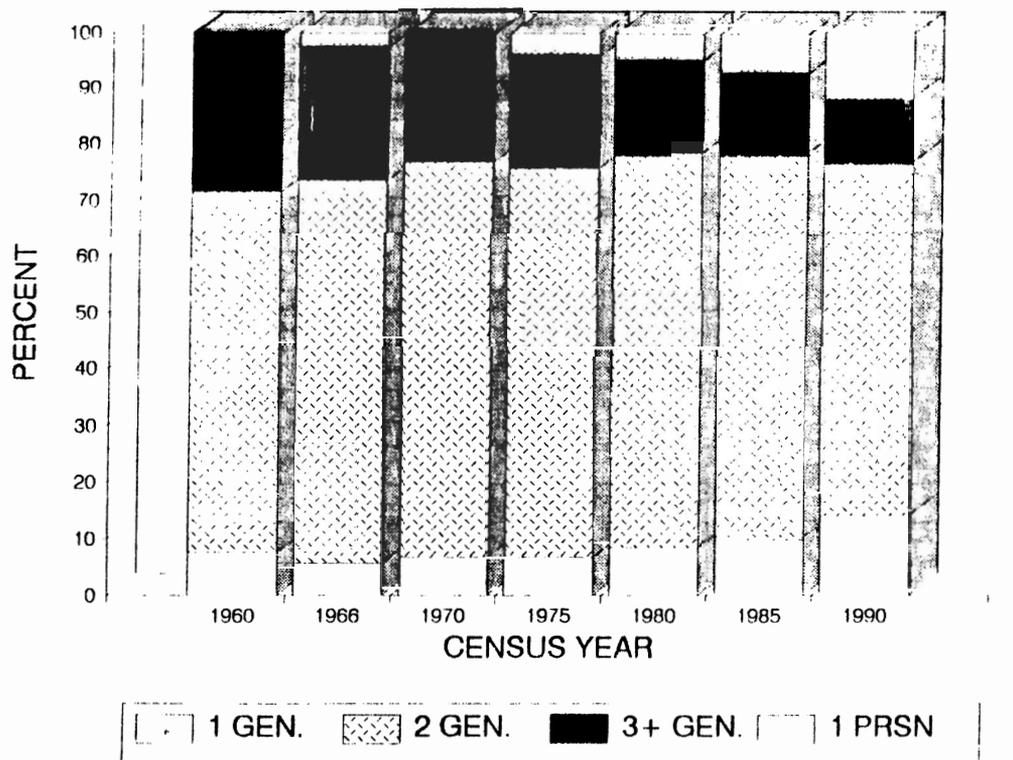
구분\년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세대가구	7.46	5.02	6.75	6.72	8.39	9.73	14.1
2세대가구	64.03	69.48	70.04	68.90	69.50	68.13	62.3
3세대가구	28.51	24.69	23.21	20.15	17.24	15.12	11.5
단독가구	-	2.79	-	4.23	4.87	7.02	12.2
핵가족비율	-	58.94	71.53	67.68	68.33	68.81	70.6

* 1990년도 수치는 특별인구조사(CDS) 결과임.

핵가족의 비율(prevalence of nuclear family)이 1970년에서 1975년에서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매우 설명하기 힘들다. 다만 가구분류의 일관성 결여, 특히 1970년도에 단독가구를 1세대 가구에 포함시킨 것이 핵가족의 비율

을 높히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사회변동, 특히 도시화 및 산업화가 어떻게 가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센서스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의 분석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도II. 가구의 세대수별 분포, 1960-1990



3. 가구주의 특성

가구주의 성격을 따지기 전에 먼저 가구주의 정의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UN의 정의에 의하면 “다른 가구원들이 그렇게(가구주로) 인정하는 가구원”이다. (UN, 1958, 5쪽) 여기서 약간 발전시킨다면 “한 가구의 가계를 주로 책임맡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가계를 책임진다는 말 자체가 갖는 모호성 때문에 역시 문제가 된다.

가구주는 단순히 가계를 책임맡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자녀가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 부양을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지만 남자 연장자가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대외적으로도 가구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보통이고 가구원 자신들도 그 사람을 가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가구주의 개념정의 그 사회가 가진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엄격하고 일률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힘든 것 같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반 혈연가구에서 누가 가구주인가 판정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비혈연가구에서 누가 가구주인가 하는 것은 역시 문제로 남는데 보통 연장자를 가구주로 보면 크게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센서스에서는 “가구주란 호적법상 호주 또는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하여 역시 모호한 점이 없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령서(39쪽) 및 지도요령서(23쪽) 따라서 우리나라의 센서스에서 누가 가구주가 되는가를 판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가구원의 연령, 혼인관계, 성별 등을 따져 조사표의 정리 단계에서 결정해도 된다.

가구주를 사회학적인 용어로 하면 가장인데 가장은 가족성원가 지배와 복종의 체계에서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 가장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배적인 문화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1)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분포의 변동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의 연도별 변동을 살피는데는 이에 관한 자료의 일관성이 요청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센서스보고서 제표양식의 틀이 잡히게 된 것은 1975년 이후로 볼 수 있다. 1960년 보고서에서는 가구주의 연령분포를 찾아볼 수 없으며 가구주

의 혼인상태도 전수집계에는 없고 20% 표본집계에만 수록되어 있다. 1966년 보고서에서는 가구주에 관해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였다가 1970에는 다시 1960년의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1975년에 이르러 제표양식에 틀이 잡히고 이것이 1985년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내용이 점점 충실해지고 있다. 1966년 보고서에는 연령구분이 1975년 이후의 것과 상이하므로 제외시키고 가구주의 성, 연령별 분포를 보면 <표 VII>와 같다.

표 VII.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분포 (%)

연령	1975		1980		1985		1990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87.2	12.8	85.3	14.7	84.3	15.7	79.9	20.1
- 14	0.08	0.02	0.05	0.03	0.03	0.02	0.01	0.01
15-24	3.1	1.3	3.2	1.8	2.9	2.3	2.4	3.4
25-29	9.0	0.7	9.7	0.8	10.5	1.1	7.9	1.7
30-34	14.0	0.8	13.4	0.9	13.8	1.0	13.5	1.2
35-39	15.3	1.2	12.9	1.2	12.6	1.1	12.4	1.4
40-44	12.5	1.7	12.7	1.6	11.0	1.4	10.3	1.7
45-49	9.4	1.9	10.4	1.9	10.4	1.7	9.3	1.8
50-54	8.4	1.7	7.4	1.9	8.2	1.8	8.7	2.2
55-59	6.4	1.3	6.3	1.7	5.6	1.7	6.8	2.0
60+	9.0	2.1	9.3	2.9	9.2	3.5	11.7	4.8

자료 : 최 봉호 (1990) 271쪽

먼저 가구주의 성별분포의 변화를 살펴 보면 여자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즉 1975년에 12.8 퍼센트였던 여자가가구주 구성비가 1980년에는 14.7 퍼센트, 1985년에는 15.7 퍼센트를 거쳐 1990년의 20.1 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5가구 중 한 가구가 여자가 가구주인 셈이다. 여자 가구주의 비율이 30-34세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15-24세의 저연령층과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연령층 여자가가구주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같은 연령층의 남자 가구주는 그 증감에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저연령층 가구주에서 여자의 비중이 점점 커져온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율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을 떠나서 단독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설명은 가구주의 성별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집계한 <표 VII>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표 VIII. 가구주의 성별 혼인상태별 분포

혼인상태\연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남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혼	92.5	93.8	94.0	93.1	92.9	92.2	89.2
사별	3.0	2.4	1.8	1.9	2.0	1.6	0.9
이혼	0.4	0.3	0.3	0.3	0.4	0.5	1.2
미혼	4.0	3.6	3.9	4.7	4.7	5.6	8.7
여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혼	27.9	33.6	27.3	24.5	22.3	22.7	24.6
사별	64.8	59.9	61.6	59.4	58.1	52.2	42.7
이혼	4.8	3.9	5.6	4.3	3.9	4.3	5.3
미혼	2.5	2.5	5.5	11.8	15.7	20.7	27.2

자료 : 최 봉호 (1990) 272쪽

<표 VII>는 남자 미혼가구주의 비율이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여자 미혼가구주의 구성비가 계속하여 크게 늘어나 온 것을 보여준다. 남자의 미혼가구주의 구성비가 1960년에 4.0 퍼센트에서 30년 후인 1990년에 8.7 퍼센트로 2 배 남짓 증가한데 비해 여자는 같은 기간 중에 2.5 퍼센트에서 27.2 퍼센트로 무려 12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비해서 이혼한 여자가구주의 구성비는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한 여자가구주의 구성비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기혼자의 구성비의 변화는 다른 혼인상태 구성비 변화의 잔여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자의 경우 사별자 가구주 구성비가 여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여자의 평균수명이 긴데다가 남자는 대부분 연하의 여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다. 기혼남자 가구주의 구성비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은 여권의 신장과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라는 것과 직접 연결시켜 생각하기는 어렵다. 남자의 기혼가구주 구성비가 낮아지는 것은 여자의 지위향상 보다는 미혼가구주의 구성비가 늘어나는 것의 여파로 봐야 할 것이다.

<표 VIII>만 본다면 자칫 여자가구주의 비중을 과장하여 생각하기 쉽다. 한 예로 1990년 미혼여자 가구주의 백분율이 27.2 퍼센트로서 남자에 비해 훨씬 많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남자가 오히려 더 많다. 왜냐하면 전체 여자가구주는 남자의 4분의 1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수를 동일한 기준(여기서는 전체 가구수)에 비취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표 IX>다. 여기서 구성비가 매우 낮은 경우가 있어 백분을 대신 천분율이 사용되었다.

표 IX.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혼인 상태별 분포 (0/00)

연도\연령	남 자				여 자			
	기혼	사별	이혼	미혼	기혼	사별	이혼	미혼
1975								
15-24	9.23	0.05	0.03	21.75	1.35	0.10	0.06	11.51
25-29	75.66	0.14	0.18	14.46	3.32	0.68	0.42	2.38
30-34	136.90	0.35	0.42	2.77	4.31	2.35	1.00	0.56
35-39	150.81	0.73	0.59	0.63	5.33	5.64	1.34	0.19
40-44	123.79	1.14	0.36	0.18	5.57	9.95	1.20	0.08
45-49	91.95	1.50	0.37	0.08	4.59	13.21	0.80	0.04
50-54	81.38	2.13	0.26	0.04	3.13	13.86	0.42	0.02
55-59	61.42	2.50	0.15	0.03	1.84	11.18	0.18	0.02
60+	81.88	8.14	0.14	0.03	1.98	19.05	0.12	0.02
1980								
15-24	10.60	0.04	0.03	21.33	1.15	0.09	0.04	17.14
25-29	82.99	0.15	0.15	14.16	3.62	0.58	0.32	3.79
30-34	130.13	0.39	0.42	2.91	4.90	2.00	0.95	1.00
35-39	126.87	0.71	0.65	0.71	5.19	4.66	1.28	0.39
40-44	125.30	1.31	0.67	0.30	5.30	8.75	1.26	0.19
45-49	101.77	1.78	0.49	0.15	4.58	12.95	0.98	0.10
50-54	71.28	2.06	0.29	0.07	3.28	15.08	0.53	0.07
55-59	59.76	2.58	0.19	0.05	2.23	14.71	0.26	0.04
60+	84.56	8.48	0.16	0.06	2.40	26.46	0.15	0.05
1985								
15-24	8.61	0.01	0.01	20.17	0.81	0.04	0.03	21.81
25-29	85.58	0.08	0.17	19.53	3.52	0.44	0.33	6.79
30-34	133.18	0.25	0.57	4.54	4.80	1.63	1.01	2.10
35-39	123.58	0.49	0.93	1.39	5.29	3.85	1.49	0.83
40-44	107.30	0.88	1.00	0.54	5.26	7.00	1.42	0.33
45-49	102.32	1.36	0.78	0.33	5.08	10.68	1.16	0.18
50-54	79.48	1.69	0.43	0.18	4.02	13.40	0.71	0.09
55-59	53.82	1.78	0.23	0.10	2.96	13.94	0.38	0.06
60+	84.93	6.71	0.20	0.11	3.91	31.02	0.28	0.09

이 <표 IX>에서 저연령층의 가구주 구성비가 남녀간 상반되는 방향으로 변해 온것은

자못 흥미로운 사실이라 하겠다. 즉 15-24세 미혼남자의 가구주 구성비가 1975년에 21.75/천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21.33/천명, 1985년에는 20.17/천명으로 그 차가 매우 근소하지만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반해 같은 연령 미혼여자의 경우는 1975년, 1980년, 1985년에 각각 11.45/천명, 17.14/천명, 21.81/천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남자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여자들이 부모를 떠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에 취업하기 위해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고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족으로부터 이탈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었는지 또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는 1990년 센서스 결과에 의해 어느 정도는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표 IX>에서 또 다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노인 가구주의 증가이다. 남자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자의 경우 1975년에는 혼인상태별로 가르지 않고 통털어 볼때 2 퍼센트를 약간 넘는 구성비를 보여주다가 1980년에는 거의 3 퍼센트에 육박하고 1985년에는 3.5 퍼센트를 넘어섰다. 특히 여자 미망인가구의 증가는 금방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노인이 가구주라는 것은 가구주의 정의상 그 가족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 노인이 전적으로 가계를 꾸려나가야 할 확률이 높다. 노인의 경제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가구주의 증가는 사회정책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특히 사별한 여자가구주의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0세이상의 고령자 가구주의 구성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이 가져다 준 결과이기는 하지만 사회정책수립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취약계층은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농촌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 자료의 한계때문에 가구주의 특성별 지역분포를 살피지 못하나 1990년 자료가 발표되면 현황을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기초로 신뢰성 높은 장래추정치를 지역별로 계산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가구주율의 변동

한 인구의 가구구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은 연령별 가구주율이다. 가구주율은 가구주의 수를 그 가구주가 속해있는 인구로 나눠 얻은 값이다. 이 가구주율은 주로 성별 연령별로 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 특수 가구주율을 구할 수 있다.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구규모별 가구주율을 구할 수도 있고 자료만

있다면 각 특성을 조합하여 복합적 특수 가구주율을 얼마든지 계산해 낼 수 있다. 이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이 성별-연령별 가구주율이다. 이 성별-연령별 가구주율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인구를 비교하는데나 한 인구의 시기별 변동을 살피는데 자주 사용된다.

표 X. 성별-연령별 가구주율의 변동 1975 - 1990 (%)

연령\연도	남자				여자			
	1975	1980	1985	1990*	1975	1980	1985	1990*
전국								
전체	54.6	55.7	57.7	47.1	7.8	9.3	10.4	11.1
15-24	5.5	6.0	6.2	7.6	2.4	3.6	5.2	9.9
25-29	47.2	50.4	49.7	52.6	3.7	4.3	5.2	10.6
30-34	82.4	82.4	83.4	84.9	5.0	5.8	6.0	7.3
35-39	91.3	91.1	91.3	94.7	7.7	8.4	8.7	10.6
40-44	94.2	94.0	94.7	96.2	12.2	11.8	12.4	15.1
45-49	95.9	95.5	96.1	95.8	16.5	16.2	15.6	18.6
50-54	96.5	96.3	96.6	94.6	18.6	21.1	19.7	22.0
55-59	94.7	95.5	95.4	89.6	17.9	22.8	23.4	23.1
60 +	75.5	81.4	80.5	66.3	12.2	17.1	20.3	23.0
시부								
15-24	5.4	7.1	7.7	-	3.4	4.7	6.4	-
25-29	48.9	53.8	52.3	-	4.5	5.0	6.0	-
30-34	84.1	85.5	85.6	-	6.0	6.5	6.7	-
35-39	92.5	93.2	92.8	-	9.5	9.6	9.6	-
40-44	94.8	95.5	95.5	-	15.6	14.1	14.0	-
45-49	96.3	96.6	96.6	-	21.8	19.8	18.3	-
50-54	96.6	96.8	96.8	-	25.3	25.3	23.4	-
55-59	95.0	95.3	95.1	-	24.9	26.7	26.9	-
60 +	80.1	80.3	80.2	-	16.0	18.3	21.3	-
군부								
15-24	6.8	4.3	3.5	-	1.1	1.6	2.2	-
25-29	45.0	43.2	42.9	-	2.3	2.7	2.8	-
30-34	80.0	76.2	77.5	-	3.7	4.2	4.0	-
35-39	90.0	87.4	87.6	-	6.0	6.5	6.5	-
40-44	93.5	92.0	92.8	-	9.3	9.0	9.4	-
45-49	95.6	94.3	95.4	-	12.4	12.7	11.8	-
50-54	96.5	95.9	96.5	-	14.1	17.4	15.5	-
55-59	94.6	95.7	95.8	-	13.7	19.6	19.8	-
60 +	73.5	81.9	80.8	-	10.1	20.6	19.4	-

* 1990년의 가구주율은 최 봉호 (1990) 277쪽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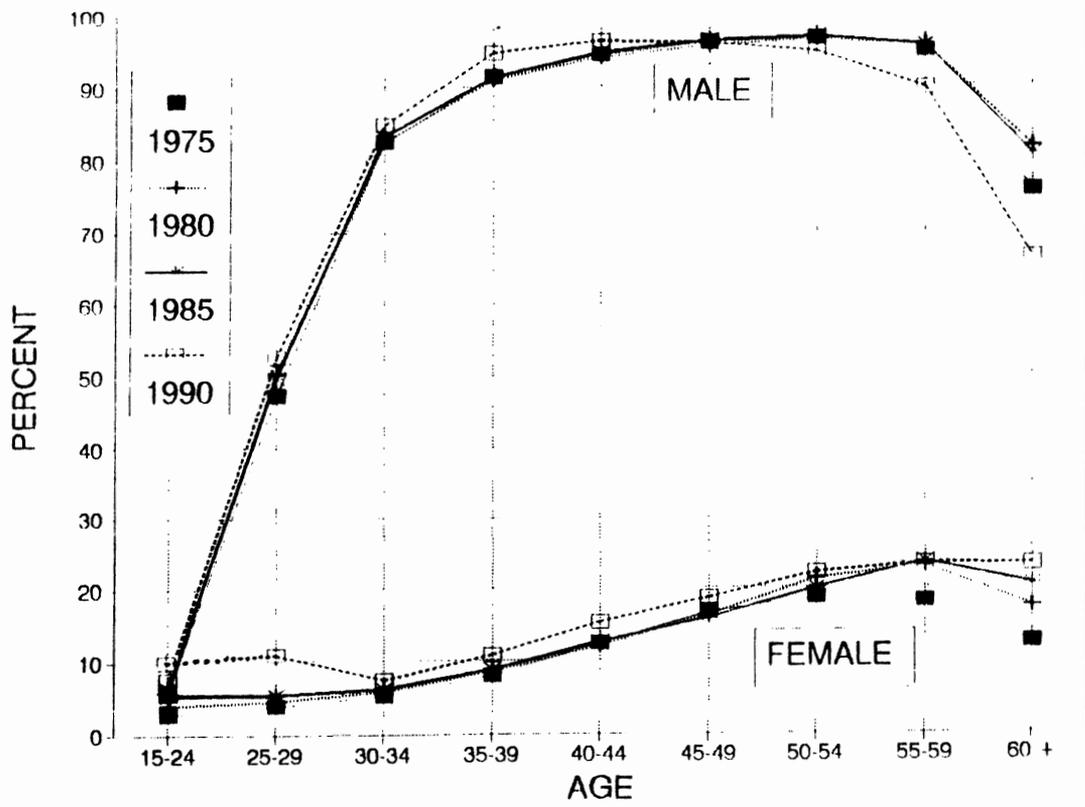
성별-연령별 가구주율을 계산하는데는 인구와 가구주의 성별-연령별 분포가 필요한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성별-연령별가구의 분류가 제대로 되어있는 것은 1975년 이후부터이다. 1966년에도 가구주가 성별-연령별로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연령구분이 10세 간격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제외시켰다. 1975년 이후의 가구주율을 제시하면 위의 <표 X>과 같다.

이 <표 X>에서 남자의 가구주율은 매우 낮은 저연령층에서 시작하여 매우 빠르게 증가하다가 그 증가속도가 완만하여지고 50-54세에서 정점에 이르렀다가 하강곡선을 그리는 특유의 형태가 어느 센서스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여자는 남자와는 판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남자와 같이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그 속도가 증가속도가 느리면서도 거의 일직선으로 59세 까지 상승하다가 떨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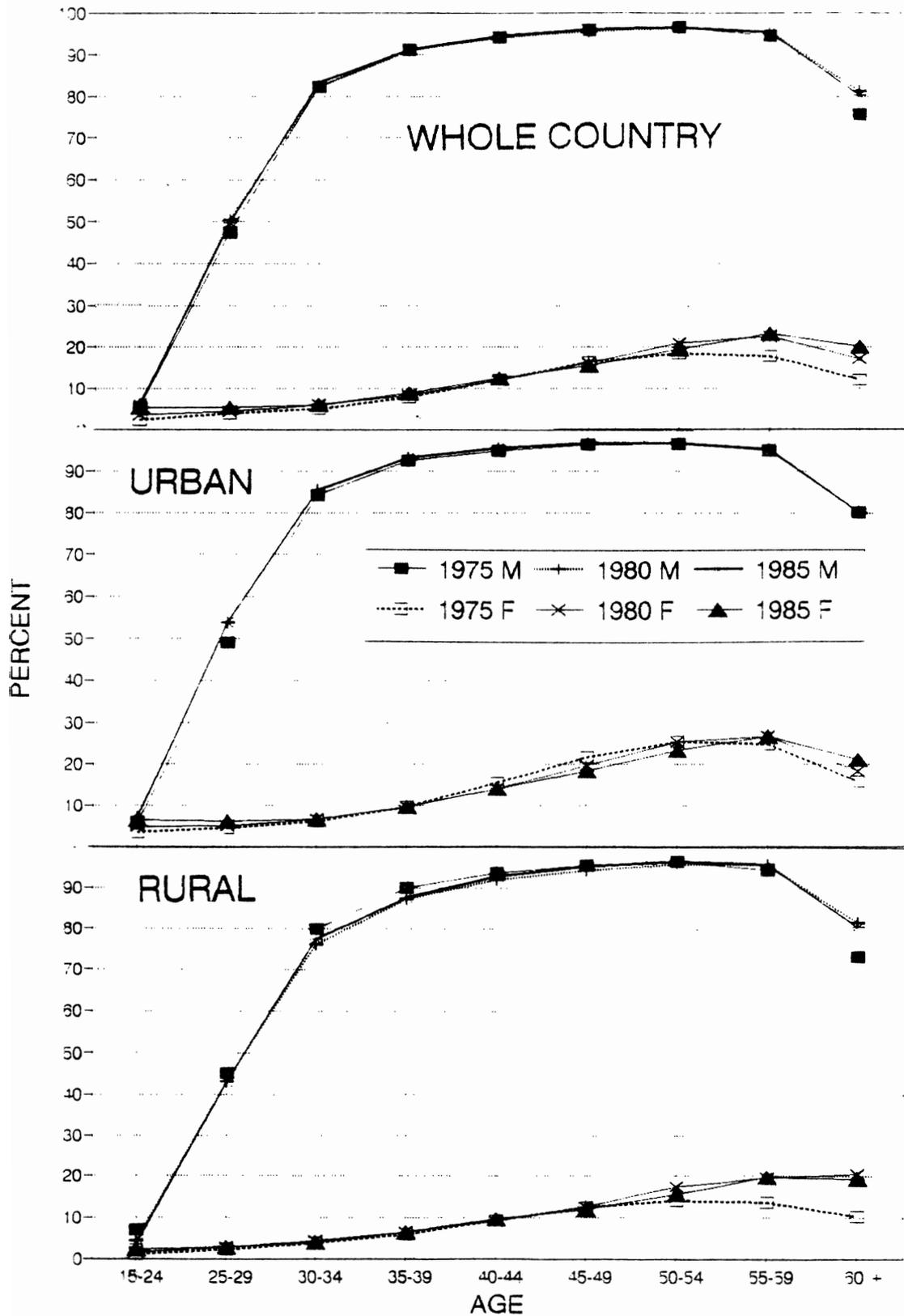
남자의 가구주율의 변동을 살펴보면 1975-85년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1980-85년 간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4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전보다 높아졌지만 4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난 이같은 가구주율의 변화가 어디에 연유하는지는 주어진 자료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1990년의 수치가 센서스결과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므로 설명을 유보하기로 한다.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특히 양극단 연령층의 가구주율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여자 가구주율의 상승은 앞서 연령별 가구주의 구성비변화와 합치되는 사실로서 우리나라 가구수의 빠른 증가에 이 연령층이 크게 기여해온 것을 알 수있다.

도III. 연령별 가구주율의 변동, 1975-1990



도IV. 연령계층 및 지역별 가구주율의 변동, 1975-1985



가구주율은 전반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농촌지역에서 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도농간의 차이는 남녀간에 약간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도 IV>를 주의해서 살펴보면 어느 센서스에서나 남자는 낮은 연령에서 상당한 지역차를 보이고 여자는 반대로 높은 연령층에서 지역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남자들이 도시에 사는 젊은 남자들보다 부모를 모시고 살 확율이 높을 것이라는 점과, 어느 연령 층이든 여자들이 가구주로서 가계를 꾸려나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농촌에서 보다는 도시에서 더 용이한데다가 나이든 여자가 농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도시에서 보다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성별-연령별 가구주율을 혼인상태별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회의 가구구조와 가족구조의 외형적인 윤곽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인구변동의 궤적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성별-연령별-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집계표가 1975년도이후의 센서스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표 XI>은 가구의 연령 및 혼인상태별 가구수와 연령 및 혼인상태별 인구라는 두개의 집계표를 가지고 계산한 성별-연령별-혼인상태별 가구주율표이다.

이 <표 XI>에서 사별남자의 경우에 가구주율이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진 것을 제외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혼인상태의 여하에 관계없이 가구주율이 모두다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계급별로 보더라도 가구주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가구주율의 전반적인 상승은 모든 혼인관계에서 남자에게 보다는 여자에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미혼자의 가구주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하고 있지만 기혼자의 경우는 연령별로 증감의 기복이 약간 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별자의 여자는 15-24세 연령층에서만 기복을 보인데 반해 남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연령층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자의 경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젊은 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인 상승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가구주 변화추세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해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족제도가 상당한변화를 겪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족의 응집력이 약화되어 가족원 특히 미혼의 젊은 가족이 『집』에 머물지 않고 이탈하는 이른바 탈가족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탈가족화의 현상과 함께 여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독립성의 획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자가 배

우자와 사별하였거나 이혼을 하여도 본가나 친정에 합류하는 경우가 더욱 더 희귀해진 것 같다. 이혼자의 경우 남자의 가구주율보다 여자의 가구주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은, 가구주가 아닌 남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여도 기왕의 가구내의 지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거나 다른 가구에 일시적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는데 반해, 여자는 똑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면 자녀와 함께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고 그 가구주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에도 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혼자의 가구주율 변화가 크지 않고 그 변화의 방향이 연령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기혼자의 가구주율의 상승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것을 말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분화할 수 있는 확대가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XI.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의 변동, 1975-1985

성\연령	기혼			사별			이혼			미혼		
	1975	1980	1985	1975	1980	1985	1975	1980	1985	1975	1980	1985
남자												
전체	89.3	90.2	91.4	53.6	61.5	57.4	51.0	55.3	62.3	6.2	6.5	8.1
15-24	51.3	58.0	66.9	60.9	44.4	35.7	19.4	17.5	16.6	4.0	4.1	4.5
25-29	75.1	78.8	82.5	70.0	54.1	51.2	36.3	34.4	36.3	16.1	16.2	18.2
30-34	87.2	87.3	89.4	74.3	64.6	63.4	44.8	45.1	49.7	23.3	24.7	29.0
35-39	92.6	92.7	93.3	70.0	71.8	72.0	52.0	56.0	61.2	27.2	28.8	37.2
40-44	95.1	94.9	95.5	74.3	80.3	78.9	56.7	62.3	70.0	27.1	31.3	44.3
45-49	96.7	96.2	96.9	79.1	83.9	84.2	61.1	66.9	73.4	28.5	31.4	49.2
50-54	97.4	97.2	97.4	78.6	83.5	83.6	60.1	67.0	72.5	26.8	32.3	51.8
55-59	96.1	96.7	96.5	73.6	79.4	78.4	57.9	65.9	72.2	28.5	31.3	50.6
60+	82.3	87.1	86.0	41.8	49.8	45.3	46.6	58.1	64.4	22.7	28.3	43.7
여자												
전체	3.4	3.6	4.0	33.7	40.8	43.9	50.6	59.4	65.0	3.2	5.0	7.7
15-24	1.5	1.3	1.4	27.9	35.5	34.0	18.6	17.6	23.5	2.6	4.1	5.9
25-29	2.1	2.2	2.0	52.4	57.9	61.0	31.1	35.6	38.5	10.8	13.9	17.3
30-34	2.8	3.4	3.2	68.2	73.3	77.6	43.6	50.7	54.9	16.3	24.1	30.9
35-39	3.9	4.0	4.3	75.2	81.9	84.9	55.7	63.0	67.7	17.9	29.0	39.4
40-44	4.5	4.5	5.2	71.4	81.7	86.4	63.8	70.3	74.5	18.9	30.7	41.5
45-49	5.1	4.8	5.4	59.8	73.2	79.3	63.7	72.9	77.0	18.1	30.6	39.9
50-54	4.9	5.1	5.6	48.8	60.4	66.5	61.7	70.0	73.9	15.0	35.7	39.5
55-59	4.3	5.0	6.2	36.3	48.4	53.8	50.4	64.6	68.1	16.2	35.0	41.9
60+	3.6	4.4	6.4	16.2	22.8	27.7	31.0	41.9	54.9	9.1	28.3	37.6

성별-연령별 가구주율의 변화는 혼인상태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가구형태, 가구 규모 등과 함께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구와 가족이 그간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 더 자세하게 살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센서스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세하다. 그러나 1970년 이전의 센서스 보고서는 그 수록내용과 분류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센서스보고서나 기타 인구학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구조와 가족의 형성-확대-축소-소멸이라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추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센서스결과라는 것이 일정 시점의 상태(stock)를 나타내는 것이지 흐름(flow)을 보여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가구나 가족의 생애주기(family life cycle)라는 역동적인 측면을 그려내기 힘들다. 최근의 센서스보고서에는 가구형태와 거주, 가구주의 직업과 교육 등으로 집계한 상세한 표가 많이 들어 있어 이러한 자료가 축적되고 신고자료와 같은 다른 자료와 관련시켜 본다면 현대 우리나라 사회의 실상을 조감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가구수의 추계

1. 장래가구수 추계의 의의

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기업체가 장기 생산계획을 짜는데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대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주택난의 해소는 국가발전계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에는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 여러나라에서 가구수를 추계하였던 것이나 미국이 1943년에 가구수를 추계하였던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인 주택의 수요와 어느 정도인지, 또 주택건설에 어느 정도의 자원을 배분해야 할 것인가를 더욱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가구추계를 실시하였던 것은 주택정책에서 가구추계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장래가구수의 추계에 대한 요구는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국가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복지정책의 개발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정책의 수립에는 노인가구와 구조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거의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구수의 추계가 갖는 정책적인 효용성에 비해 정책결정담당자나 인구연구자들이 기울인 관심이나 노력은 매우 미미하였던 것 같다.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자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문가에 의뢰하기 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에 의거해서 장래의 가구수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 같고, 인구분야 연구자는 인구분야 연구자대로 신뢰할 만하고 충분히 상세한 예측치를 작성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려 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장래가구수를 예측한 것은 1970년 한국은행에 의한 것인데, 수년간의 평균가구원수의 변동추세를 연장하여 장래의 평균가구원수를 구한 다음 이것으로 총인구를 나눠 가구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박 병태 등(1984)이 1980년 한해의 성별연령별 가구주율을 구하여 이 가구주율이 지속될 것이라

는 매우 단순한 가정아래 장래의 가구수를 추계한 것이 있다. 김 남일(1988) 등이 UN의 가구추출법으로 가구수를 추계하였으나 널리 이용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본 작업은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고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UN의 가구추출법을 이용하되 『고노』가 제안하여 일본에 적용한 거좌 같이 가구추출법의 원리를 확장하여 가구규모별,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구수를 추계하였다.

2. 가구수추계방법

가구수 추계방법에는 본 작업에서 사용한 UN의 가구추출법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그 중 하나가 단순 가구비법(simple household-to-population ratio method)이다. 이방법은 20세 이상 64세 까지 인구에 대한 가구수의 비를 연도별로 계산하여 그 변화 추이를 연장하여 장래의 비를 구한 뒤, 그것으로 20-64세 인구를 나누는 것이다. 물론 변화추세곡선을 정할 때 여러가지 함수가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Brown-Glass-Davison 모델이라고도 하는 생명표법과 동태통계자료를 심분활용하는 동태통계법, 최근에 컴퓨터의 보급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micro simulation 법등이 있으나 그렇게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 실정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역시 UN의 가구추출법으로서 적절한 성별, 연령별 인구추계가 마련되어 있다면 장래의 가구수와 가구구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법이 간편하고 필요로 하는 입력자료도 단순하다. 이 방법은 그 기본자료로서 이용가능한 인구추계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구의 규모와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인구구조는 과거의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방법은 인구변동의 이 세 가지 요소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가구의 생성, 성장, 축소, 해체라는 동적인 측면을 계산에 넣을 수 없을 뿐더러 현재 가구수의 저량(stock)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유량(flow)을 숫자로 제시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최초로 가구추출법을 사용해서 가구수를 추계한 것은 1947년 미국에서였지만 1938년에 이미 이 방법의 사용이 시도되었다. 미국의 국가 자원계획위원회에서는 1930년 센서스의 성별, 연령별 가구추출을 이용하여 1980년까지의 가구수를 추계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구주율이 일정하게 지속된다는 가정하였다.

가구주율법에서는 인구를 성별, 연령별로(가능하면 혼인상태별로) 분류하여 그 분류에 속하는 인구중에 가구주의 비율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이 과거의 가구주율을 바탕으로 장래의 가구주율을 추정한다. 이 추정된 가구주율에 추계인구를 곱하여 가구수를 각 성-연령 집단에서 구하여 가구구성을 살피기도 하고 전부 합산하여 전체가구수를 추계하기도 한다. 우선 가구주율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h(i, j, t) = \frac{H(i, j, t)}{P(i, j, t)}$$

여기서 h는 가구주율을, H는 가구주수를, P는 인구를 나타내며, 첨자인 i, j, k는 각각 성별, 연령, 연도를 나타낸다. 각각의 성-연령 집단에서 가구수를 구하는 식은 누구나 위의 식에서 쉽게 유도할 수 있다. 전체가구수는 각각의 성-연령집단별 가구수를 합하면 되고 그 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um_i \sum_j H(i, j, t+x) = \sum_i \sum_j P(i, j, t+x) \cdot h(i, j, t+x)$$

위의 식에서 세번째 첨자 t+x는 x년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x년 후의 가구주율을 구할 때 그 변화를 어떻게 가정하는냐에 따라 정율법(constant rate method), 외삽법(extrapolation method), 회귀법(regression method), 규범적 접근(normative approach)으로 나뉜다. 이중 정율법은 장래의 가구주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 시점의 가구주율 밖에 구할 수 없고 가구주율의 변화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는 부득이 이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두번째 외삽법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성, 연령, 그리고 혼인상태별 가구수와 인구수가 2개 이상의 시점에서 조사 집계되었을 때 두 시점의 가구주율을 구하고 이 가구주율의 변화율을 연장시켜 장래의 가구주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중 UN이 권장하고 있는 지수함수법도 여기에 속한다. 지수함수에 맞춰(fit) m년 후의 가구주율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h(i, j, t+x) = 1 - [1 - h(i, j, t-n)] \cdot \left[\frac{1 - h(i, j, t)}{1 - h(i, j, t-n)} \right]^{[(t+m)-(t-n)]/n}$$

이 공식은 각주주율이 늘어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줄어드는 경우 추계기간이 길어지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음수의 가구주율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함께 사용한다.

$$h(i, j, t+x) = h(i, j, t-n) \cdot \left[\frac{h(i, j, t)}{h(i, j, t-n)} \right]^{[(t+m)-(t-n)]/n}$$

가구주율법이라는 것이 특정계층 인구의 가구주비율을 일정한 함수에 맞춰 추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구주율 뿐만 아니라 다른 비율을 추정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착안한 것이 Kono의 확장가구주율법이다. 그는 장래의 가구주율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장래의 각 규모별 가구의 구성비를 추정하고 가구주율법에 의하여 계산된 성별, 연령별 가구수에 각각의 규모별 구성비를 곱하여 각성별, 연령별, 가구 규모별 가구수를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의 이런 방법을 가구형태별, 혼인상태별 가구수를 구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본 작업에서는 혼인상태별 가구수와 가구규모별 가구수를 추계하는데 이용하기로 하였다.

각 혼인상태별로 가구주율을 구할수 있을만큼 우리나라의 센서스보고서가 상세하기는 하지만 혼인상태별로 가구주율을 이용하여 가구수를 추계하려면 혼인상태별 인구추계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인구추계는 그렇지 못하므로 각 성별, 연령별 계층의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추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구주율을 추계할 때 두개 시점의 가구주율이 필요한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데, 이 두 개 시점이 반드시 최근의 시점과 다음으로 현재에 가까운 시점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단기적인 전망을 하는데는 가장 근접한 시점의 것을 사용해야겠지만 5년 이상 수십년 후의 것을 추정하려고 한다면 장기적인 변화의 추이가 반영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본다. 또 모든 성과 연령층에서 동일한 시점의 가구주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본 추계작업에서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따라 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성별, 연령별 계층에서 1980년과 1990년의 가구주율 변화를 사용하게 되었다.

3. 장래의 가구주율과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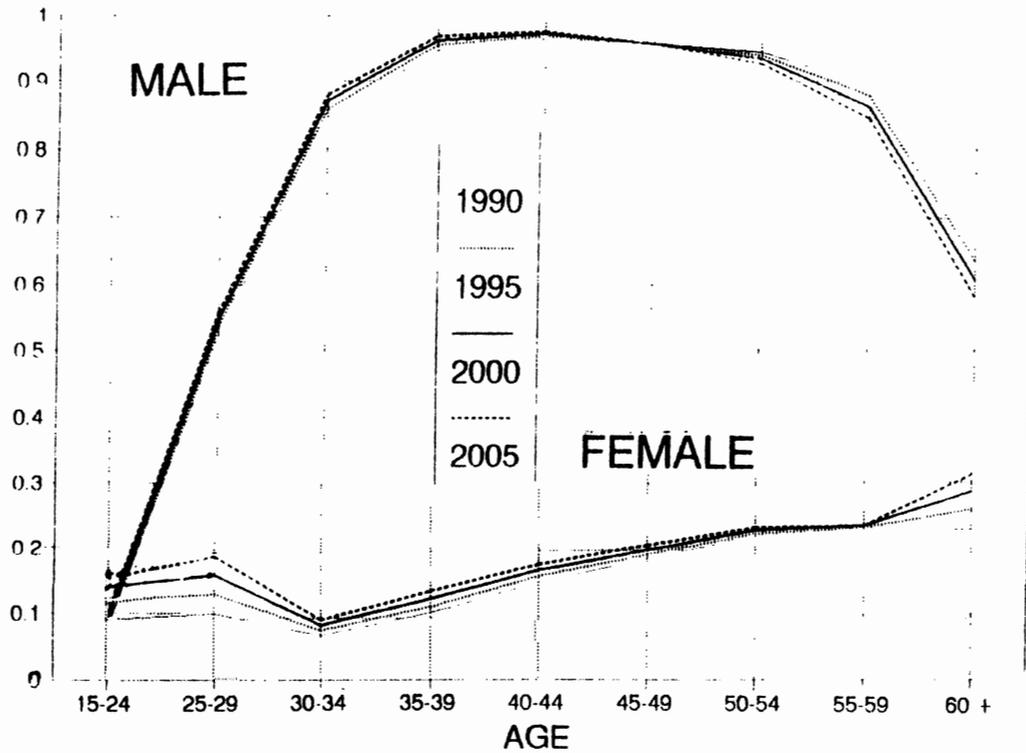
먼저 성별, 연령별 가구주율의 장래 추계치를 보면 다음의 <표 XII>와 같다. 이 <표 XII>는 최근 10년 혹은 15년의 가구주율 변화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장래의 가구주율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이 표에 의하면 먼저 남자의 경우 15-24세 연령층의 가구주율은 현재의 7.6 퍼센트에서 1995년에 8.3 퍼센트, 2000년에 약 9 퍼센트, 2005년에 9.7 퍼센트로 증가하게 된다. 25-29세 연령층은 1990년의 52.6 퍼센트에서 2005년에는 55.7퍼센트로 증가하게 되는 등 낮은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4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XII. 장래의 가구주율, 1990-2005

성\연령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남자								
15-24	0.076	0.07738	0.07876	0.08014	0.08152	0.08290	0.08427	0.08564
25-29	0.526	0.52815	0.53028	0.53241	0.53452	0.53663	0.53873	0.54082
30-34	0.849	0.85130	0.85356	0.85578	0.85798	0.86013	0.86226	0.86436
35-39	0.947	0.94872	0.95039	0.95200	0.95356	0.95507	0.95653	0.95794
40-44	0.962	0.96306	0.96408	0.96508	0.96605	0.96700	0.96791	0.96881
45-49	0.958	0.95793	0.95786	0.95780	0.95773	0.95766	0.95759	0.95753
50-54	0.946	0.94475	0.94350	0.94225	0.94100	0.93975	0.93851	0.93726
55-59	0.896	0.89270	0.88941	0.88613	0.88287	0.87962	0.87638	0.87315
60 +	0.663	0.65728	0.65161	0.64599	0.64042	0.63490	0.62942	0.62399
여자								
15-24	0.099	0.10379	0.10855	0.11329	0.11801	0.12270	0.12736	0.13200
25-29	0.106	0.11207	0.11809	0.12408	0.13002	0.13593	0.14179	0.14762
30-34	0.073	0.07449	0.07597	0.07745	0.07893	0.08041	0.08189	0.08336
35-39	0.106	0.10817	0.11034	0.11250	0.11465	0.11680	0.11895	0.12108
40-44	0.151	0.15290	0.15479	0.15668	0.15857	0.16045	0.16233	0.16420
45-49	0.186	0.18738	0.18876	0.19014	0.19151	0.19288	0.19425	0.19562
50-54	0.220	0.22089	0.22179	0.22268	0.22357	0.22446	0.22535	0.22624
55-59	0.231	0.23130	0.23160	0.23190	0.23220	0.23250	0.23279	0.23309
60 +	0.230	0.23566	0.24129	0.24687	0.25241	0.25791	0.26336	0.26878
성\연령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15-24	0.08701	0.08838	0.08974	0.09110	0.09246	0.09382	0.09518	0.09653
25-29	0.54290	0.54496	0.54702	0.54907	0.55112	0.55315	0.55517	0.55718
30-34	0.86642	0.86845	0.87045	0.87242	0.87436	0.87627	0.87815	0.88000
35-39	0.95931	0.96063	0.96191	0.96315	0.96435	0.96551	0.96663	0.96771
40-44	0.96967	0.97052	0.97133	0.97213	0.97291	0.97366	0.97439	0.97510
45-49	0.95746	0.95739	0.95732	0.95725	0.95718	0.95711	0.95704	0.95698
50-54	0.93602	0.93478	0.93354	0.93230	0.93107	0.92984	0.92860	0.92737
55-59	0.86993	0.86673	0.86354	0.86035	0.85718	0.85403	0.85088	0.84775
60 +	0.61861	0.61327	0.60798	0.60274	0.59754	0.59239	0.58728	0.58221
여자								
15-24	0.13661	0.14120	0.14577	0.15031	0.15483	0.15932	0.16379	0.16824
25-29	0.15340	0.15915	0.16485	0.17052	0.17615	0.18174	0.18729	0.19281
30-34	0.08483	0.08630	0.08776	0.08922	0.09069	0.09214	0.09360	0.09505
35-39	0.12322	0.12535	0.12747	0.12959	0.13170	0.13381	0.13592	0.13801
40-44	0.16607	0.16794	0.16980	0.17166	0.17351	0.17536	0.17720	0.17904
45-49	0.19698	0.19835	0.19971	0.20106	0.20242	0.20377	0.20512	0.20647
50-54	0.22713	0.22801	0.22890	0.22978	0.23066	0.23155	0.23243	0.23331
55-59	0.23339	0.23369	0.23399	0.23429	0.23458	0.23488	0.23518	0.23548
60 +	0.27416	0.27950	0.28480	0.29006	0.29528	0.30047	0.30561	0.31072

여자의 경우는 모든 연령층에서 가구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15-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 그리고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구주율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특히 15-24세 연령층에서 가구주율은 남자보다 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5년 간격으로 추계된 연령별 가구주율을 그림으로 보면 <도 V>와 같다.

도V. 장래의 가구주율, 1990-2005



이 가구주율의 추계치는 과거 일정기간 중의 변동율이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추계(가정된) 가구주율을 가지고 추계한 가구수이다. 위의 가구주율과 통계청이 최근 작성한 인구추계치(<부록 I> 참조)를 사용하여 2005년 까지의 가구주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 XIII>과 같다.

표 XIII.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장래 가구수, 1990-1997

성\연령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계	11794081	12127156	12492538	12863373	13245894	13631769	14018507	14399650
남자	9546754	9817890	10082562	10352245	10627349	10899102	11169266	11432745
15-24	342162	347030	351018	353078	354927	357798	360849	363382
25-29	1147228	1128111	1114657	1112716	1136250	1171939	1205782	1237031
30-34	1773615	1826270	1871503	1896860	1888320	1855790	1822766	1798941
35-39	1471802	1591093	1691719	1808215	1910585	1970325	2027780	2076821
40-44	1235618	1265437	1291272	1312639	1364216	1473946	1593659	1694579
45-49	1074831	1069930	1076665	1105223	1148948	1191446	1220266	1245471
50-54	965595	986002	1012938	1018992	1011201	1005803	1001656	1008585
55-59	670932	717025	756282	795019	825850	840382	857770	880726
60 +	864971	886992	916508	949502	987052	1031673	1078737	1127209
여자	2247327	2309266	2409976	2511128	2618545	2732667	2849241	2966905
15-24	420800	438664	455457	469809	483701	498366	512437	525392
25-29	222085	230314	238715	248387	263246	281457	300477	319660
30-34	146535	153439	159816	164952	167287	167411	167239	167467
35-39	155159	172074	187574	205119	221458	232701	243235	252911
40-44	184100	190862	196945	202106	212047	232321	255544	276347
45-49	238117	200391	203500	211216	221506	231516	238791	245187
50-54	223977	230319	237131	239849	239155	237329	235969	238940
55-59	197630	205743	212076	218094	224409	229508	235442	241828
60 +	458924	487460	518762	551597	585736	622057	660108	699172

이 표는 우리나라의 가구수는 1990년 현재 1,119만 4천 가구에서 2000년에는 무려 1,548만 9천 가구로 불어나고 2005년에는 1,708만 9천 가구로 불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가구수의 격증은 우리나라의 주택문제가 쉽사리 완화되기 힘들다는 어두운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주택율을 계속 유지하는 데만도 앞으로 10년간 적어도 4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표 XIII.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장래 가구수, 1998-2005

성\연령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계	14775233	15140859	15489339	15818801	16133099	16444139	16763237	17088532
남자	11693584	11950579	12193744	12419093	12630179	12838830	13053905	13272588
15-24	363609	361074	358276	358810	358099	358705	354683	354505
25-29	1255896	1255018	1238105	1204617	1167888	1130929	1113299	1119436
30-34	1793731	1829572	1884831	1936926	1984653	2012315	2008172	1978277
35-39	2103687	2092792	2055221	2017107	1989174	1981851	2019856	2079151
40-44	1811331	1913975	1974037	2031751	2080892	2107760	2096594	2058594
45-49	1266375	1316526	1422962	1538840	1636476	1749339	1848492	1906517
50-54	1036100	1077559	1117662	1144788	1168606	1188265	1235362	1335289
55-59	885203	877605	872107	867991	873959	897454	932692	966333
60 +	1177652	1226459	1270543	1318262	1370433	1412212	1444756	1474487
여자	3081649	3190280	3295595	3399709	3502920	3605309	3709332	3815944
15-24	535020	539767	543527	550108	556632	562749	564667	562676
25-29	336160	347324	353286	353201	351420	349158	352681	363633
30-34	168792	173695	180695	188044	195334	200875	203233	202675
35-39	260605	263856	263619	262928	262880	264567	271871	282446
40-44	299871	321340	335204	347910	359269	367732	369898	367223
45-49	250403	261512	285267	312423	336397	363477	387856	402904
50-54	247305	258621	269529	277192	283832	289087	301138	327700
55-59	243995	242671	240210	238264	240740	248623	259407	269696
60 +	739498	781496	824258	869639	916416	959041	998581	1036991

가구주율의 전반적인 증가는 곧 가구의 증가속도가 인구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평균가구원수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평균가구원수를 가구수와 총인구와 함께 제시하면 <표 XIV>와 같다.

표 XIV. 평균가구원수의 전망, 1990-1997

구분\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인구(천명)	42,869	43,268	43,664	44,056	44,453	44,851	45,248	45,642
증가율(0/00)	9.8	9.2	9.0	9.0	9.0	8.9	8.7	8.6
가구(천가구)	11,794	12,127	12,493	12,863	13,246	13,632	14,019	14,400
증가율(0/00)	28.2	30.2	29.6	29.8	29.1	28.4	27.2	26.0
평균가구원수	3.63	3.57	3.50	3.42	3.36	3.29	3.23	3.17

표 XIV. 평균가구원수의 전망, 1998-2005

구분\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인구(천명)	46,033	46,416	46,789	47,150	47,497	47,827	48,139	48,434
증가율(0/00)	8.3	8.0	7.7	7.4	6.9	6.5	6.1	
가구(천가구)	14,775	15,141	15,489	15,819	16,133	16,444	16,763	17,089
증가율(0/00)	24.8	23.0	21.3	19.8	19.3	19.4	19.4	
평균가구원수	3.12	3.07	3.02	2.98	2.94	2.91	2.87	2.83

<표 XIV>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1 퍼센트 미만에서 계속 둔화되는데 비해 가구의 증가율은 3 퍼센트까지 올라갔다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균가구원수는 1990년 현재의 3.6명에서 2000을 지나면 3명 이하로 줄어들고 2005년에는 2.8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가구원수가 3명 미만에 머문다는 것은 자녀가 없는 가족가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가구원수가 이렇게 격감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함께 가족생활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평균가구원수의 축소를 주택건설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뒤에 살펴볼 가구원수 별 가구수의 추계는 이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4. 가구규모별 구성비의 변화와 가구구조의 전망

가구규모별 가구수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일정 연령층 내의 가구규모별 상태의 분포를 알아야 한다. m 년 후 i 연령층에서 가구원이 j 명인 가구의 구성비를 $P(i, j, t+m)$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P(i, j, t+m) = 1 - [1 - P(i, j, t-n)] \cdot \left[\frac{1 - P(i, j, t)}{1 - P(i, j, t-n)} \right] \cdot [(t+m)-(t-n)]/n$$

여기서 n 은 두 자료 시점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고 m 은 나중 자료 시점과 추계하려고 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 위의 공식은 가구주율을 추계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수식이다. 여기서도 가구주율을 추계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공식을 사용하여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P(i, j, t+m) = P(i, j, t+m) \cdot \left[\frac{P(i, j, t)}{P(i, j, t-n)} \right] \cdot [(t+m)-(t-n)]/n.$$

추정하는 값이 구성비일 경우에는 모든 구성비를 합해서 1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안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1인 가구의 구성비, 2인가구의 구성비, 3인 가구의 구성비등 모든 규모의 가구가 차지하는 구성비의 합이 단위수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위의 공식을 사용하여 가구규모별 구성비를 구하고 이를 합하면 기준연도에서 멀어질수록, 다시 말해서 추계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위수보다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불합리성은 이 방법을 제안한 Kono도 지적하지 않은 점이다. 본 추계작업에서는 각 규모별 구성비를 합하면 단위수가 되도록 비례배분을 반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구성비의 합과 단위수의 차이를 각 구성비의 크기에 따라 비례배분하는 것을 반복하여 구성비의 합이 단위수가 되도록 만들었다.

본 추계작업에 이용된 자료 중 1990년도 자료에는 성별, 연령별 가구주율 밖에 없기 때문에 가구규모별 추계는 부득불 1980년과 1985년의 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1980년도와 1985년도 자료도 가구의 연령별로 가구규모를 분류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가구규모별로만 그 구성비를 추계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위의 연령계급별 가구규모별 구성비를 추계하는 공식 중 연령을 나타내는 첨자인 i 를 삭제한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표 XVI>과 같다.

표 XVI. 장래의 가구원수별 가구의 분포, 1990-1997 (%)

가구원수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	11.7	12.0	12.6	12.7	13.0	13.2	13.5	13.7
2	17.9	18.3	18.7	19.0	19.3	19.6	19.9	20.2
3	19.0	19.2	19.4	19.6	19.7	19.9	20.0	20.1
4	26.4	26.7	27.0	27.3	27.6	27.8	28.0	28.2
5	14.9	14.5	14.2	13.8	13.4	13.1	12.7	12.4
6	6.7	6.2	5.8	5.4	5.0	4.7	4.3	4.0
7+	3.5	3.0	2.6	2.3	2.0	1.7	1.5	1.3

표 XVI. 장래의 가구원수별 가구의 분포, 1998-2005 (%)

가구원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	14.0	14.2	14.4	14.6	14.8	15.0	15.2	15.4
2	20.5	20.7	20.9	21.1	21.3	21.5	21.7	21.9
3	20.2	20.3	20.4	20.5	20.6	20.7	20.7	20.8
4	28.4	28.5	28.7	28.8	29.0	29.1	29.1	29.3
5	12.1	11.8	11.5	11.1	10.9	10.6	10.3	10.0
6	3.7	3.5	3.2	3.0	2.8	2.6	2.4	2.2
7+	1.1	1.0	0.9	0.7	0.6	0.6	0.5	0.4

이 <표 XVI>에서 5인 이상의 다인가구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2인 이하의 소인가구는 점점 그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3-4인으로 이뤄지는 가구의 비중도 늘어나기는 하지만 15년간 2 퍼센트 포인트 미만밖에 늘어난지 않을 것으로 추계되었다.

일단 구성비가 정해지면 각 가구원수별 가구수는 해당연도 가구의 추계치에 구성비를 곱하는 것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XVII>로 정리되었다. 이 표에서 우리는 1990년 현재 40만 가구가 넘는 7인 이상의 대가구는 2000년 경에 이르면 13만 가구로 격감하고 2005년에는 7만여 가구 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1990년 현재 130만 가구 정도이던 1인 단독가구의 수가 15년 후에는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 2인가구나 3인가구의 수는 향후 15년간 1.5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4인가구의 수는 계속해서 가장 일반적인 가구의 위치를 지키게 될 것이지만 3인 이하의 소규모 가구처럼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 5인가구와

6인가구는 7인 이상의 가구처럼 그렇게 빨리 감소하지는 않지만 그 절대수가 격감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사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의 건설이 우선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XVII. 가구원수별 가구수, 1990-1997

가구원수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전체	11794082	12127156	12492538	12863372	13245894	13631769	14018507	14399650
1	1378529	1458969	1543488	1628929	1716090	1803918	1892059	1979595
2	2109032	2216623	2329838	2443869	2559927	2676443	2792917	2908026
3	2238637	2327434	2421575	2516012	2612024	2708036	2803590	2897420
4	3110527	3239318	3375436	3511846	3650318	3788637	3926146	4061055
5	1755563	1760695	1768232	1774338	1779998	1784191	1786741	1787003
6	789414	755535	724089	693380	663799	634951	606796	579146
7+	412380	368582	329880	295000	263738	235593	210257	187405

가구원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14775233	15140859	15489339	15818801	16133099	16444139	16763237	17088532
1	2066461	2151973	2235013	2315192	2392969	2470053	2548157	2627048
2	3021715	3133024	3240378	3343277	3442440	3540363	3639512	3739547
3	2989546	3079091	3164593	3245662	3323085	3399329	3476778	3555097
4	4193370	4321846	4444414	4560509	4671223	4780020	4890245	5001429
5	1785184	1780958	1773716	1763514	1751031	1737735	1724885	1712288
6	552114	525631	499567	473992	449125	425343	402901	381678
7+	166843	148336	131657	116656	103226	91295	80759	71446

만약 가구규모의 분포의 연령별 자료가 입수가 가능하고 이것을 기초로 장래의 가구규모별 가구수를 연령별로 추계할 수 있었으면 더욱 유용하고 시의성있는 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작업의 이러한 약점을 약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혼인상태별 가구수의 추정이다.

5.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의 변화와 가족구조의 전망

1975년 이후의 센서스보고서에는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이 수록되어 있어 장래의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은 어렵지않게 계산해낼 수는 있다. 그러나 가구수를 추계하

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본 작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서도 혼인상태별로 인구를 추계하지는 못하고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구수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이 아니라 장래의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가 필요하다.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의 추계는 장래가구의 가구규모별 분포를 추계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혼인상태의 분포 역시 각 구성비를 합하면 단위수가 되어야 하므로 위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수치를 조정하였다. 그 결과를 <부록 II>로 따로 수록하고 이 중에서 5년 간격의 것만을 추려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XVIII>이다.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15-24세 가구주는 대부분 미혼이고, 미혼자의 비율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높다. 이러한 미혼비율은 앞으로 계속 높아져서 여자의 경우에는 2005년에 이 계층에 속하는 가구주 1,000명 중 996명이 미혼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이와 같은 탈가족화 경향은 다소 약하기는 하지만 남자의 경우에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 혼인상태별 구성비만을 가지고 가구구조 변화를 운위할 수 없다. 특히 저연령층의 여자 가구주 자체가 남자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는 탈가족화 경향이 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구구조의 변화는 울보다는 실 수치를 가지고 살피는 것이 더 적절하다.

가구주의 각 혼인상태별 가구수는 <표 XIII>에서 계산된 성별, 연령별 가구수에 해당 계층의 혼인상태 구성비를 곱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부록 III>에 실고 그 중 1990년 이후 매 5년이 되는 년도의 수치만을 뽑아 만든 것이 다음의 <표 XIV>다. 우선 전체적으로 가구형태별 가구수의 증가를 살펴보면 기혼자가 가구주인 가구의 수가 1990년에 955.2만에서 1995년의 1100.8만, 2000년의 1220.6만으 거쳐 2005년에 1368.6만으로 약 1.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배우자를 사별한 가구주의 수가 1990년에 약 107.9만에서 1995년에 119.6만, 2000년에 136.1만, 2005년에 153.3만으로 역시 1.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었다. 같은 기간 중에 사별자 가구가 약 1.5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혼자의 가구는 같은 기간 중에 17.2만에서 41.4만으로 무려 2.4배나 많아질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이혼자의 절대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실수치로 따진다면 다른 혼인상태의 가구주 증가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각 년도별로 혼인상태별 가구주 분포를 계산해보면 기혼자의 구성비가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에 각각 80.99, 80.76, 80.06, 80.09 퍼센트로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사별자의 경우 같은 연도에 9.15, 8.77, 8.93, 8.98 퍼센트로서 역시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미혼자 가구 역시 8.40, 8.71, 8.93, 8.51 퍼센트로서로서 분포가 매우 안정적인 편이다. 다만 이혼자 가구의 구성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경향은 여자와 남자로 나뉘어서 보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기혼자 가구주의 비율이 빨리 증가할 것이고 이혼상태의 가구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가구주가 되는 가구가 빨리 늘어나게 될 것은 물론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본 추계에 의하면 이혼한 여자 가구주가 이혼한 남자 가구주의 두배 가까이 되며 그 차이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사회정책적인 면에서 노인단독가구, 노인만으로 이뤄진 노인가구, 앞의 두 경우는 아니지만 노인이 가구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에 있는 가구의 숫자는 관심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본 추계에서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사회정책상 취약계층인 가구의 수를 위와 같이 상세하게 분류하여 추계할 수 없었다. 대신 60세 이상의 가구주 수를 살펴보는 것도 그런대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는 1990년에 132.4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의 대부분(3분지 1)은 배우자와 동거하는 가구주였고 나머지 3분지 1은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중 약 1만명 가량이 미혼자이거나 이혼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혼인상태별 분포는 2005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지만 노인의 증가와 노인 가구주율의 증가로 인해 노인가구는 계속 전체 가구주 증가속도보다 빨리 증가하게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즉 1990년에 60세 이상 가구주는 132만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1995년에는 165.4만, 2000년에는 205만, 2005년에는 251만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성별로 보면 여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특히 이혼에 의한 여자가구주의 증가는 여기서도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표 XVIII.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 분포, 1990-2005

(0/00)

연령\혼인상태	남자				여자				
	1990	1995	2000	2005	1990	1995	2000	2005	
15-24	기혼	241.2	205.8	175.6	149.9	20.4	11.7	6.7	3.8
	사별	0.2	0.1	0.0	0.0	0.5	0.2	0.1	0.0
	이혼	0.3	0.1	0.1	0.0	0.9	0.6	0.3	0.2
	미혼	758.4	794.0	824.3	850.1	978.2	987.6	992.9	996.0
25-29	기혼	960.5	978.7	987.8	992.3	231.8	168.9	123.2	089.9
	사별	0.5	0.3	0.2	0.1	22.7	13.0	7.4	4.2
	이혼	2.1	2.4	2.6	2.9	22.7	17.3	13.3	10.2
	미혼	37.0	18.6	9.4	4.7	722.8	800.8	856.1	895.7
30-34	기혼	982.7	985.3	986.8	987.6	456.1	411.9	371.6	335.0
	사별	1.2	0.7	0.5	0.3	129.4	097.4	73.3	55.1
	이혼	5.2	6.2	7.2	8.3	102.9	100.1	97.2	94.4
	미혼	10.9	7.7	5.5	3.7	311.6	390.6	458.0	515.6
35-39	기혼	979.9	977.3	974.5	971.7	468.0	470.4	469.9	467.1
	사별	2.8	2.0	1.4	1.0	276.8	226.3	184.1	149.2
	이혼	9.7	12.1	14.4	16.7	147.2	162.5	175.8	187.5
	미혼	7.6	8.7	9.7	10.8	108.0	140.8	170.2	196.3
40-44	기혼	977.1	974.0	970.6	967.0	405.6	431.7	454.1	473.1
	사별	6.2	4.8	3.7	002.9	439.8	385.7	336.8	293.4
	이혼	13.0	16.8	20.6	24.4	119.8	137.3	153.5	168.3
	미혼	3.7	4.4	5.7	5.7	34.8	45.5	55.6	65.1
45-49	기혼	977.9	977.3	976.1	974.5	343.4	385.0	422.0	454.6
	사별	9.8	7.4	5.6	4.2	558.3	497.8	442.8	393.0
	이혼	10.2	13.0	15.7	18.4	82.5	96.5	109.7	122.2
	미혼	2.0	2.3	2.6	2.9	15.8	20.7	25.5	30.2
50-54	기혼	976.7	979.1	980.5	981.2	264.5	305.4	343.3	378.1
	사별	15.3	11.4	008.4	006.2	678.7	625.4	575.5	529.0
	이혼	6.7	8.1	9.5	10.9	50.0	60.8	71.2	81.4
	미혼	1.3	1.4	1.6	1.7	6.8	8.4	10.0	11.6
55-59	기혼	969.0	973.3	976.3	978.4	209.8	246.9	281.8	314.8
	사별	24.6	19.0	14.7	11.3	757.7	713.2	670.9	630.7
	이혼	5.2	6.2	7.3	8.4	28.5	35.1	41.6	48.1
	미혼	1.2	1.5	1.7	1.9	4.1	4.9	5.6	6.4
60+	기혼	937.4	948.1	956.6	963.2	138.3	164.9	190.5	215.3
	사별	58.6	47.0	37.7	30.2	847.9	817.9	788.8	760.6
	이혼	2.7	3.2	3.7	4.2	10.6	13.3	16.0	18.7
	미혼	1.3	1.7	2.0	2.4	3.2	4.0	04.7	5.4

표 XIX.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수, 1990-2005

	남 자				여 자			
	1990	1995	2000	2005	1990	1995	2000	2005
기혼	9031944	10355598	11377599	12661921	520097	652887	828012	1023678
15-24	82544	73642	65453	53121	8576	5812	3627	2149
25-29	1101855	1147005	1238045	1110802	51475	47542	43511	32673
30-34	1742957	1828535	1805046	1953723	66829	68962	67140	67903
35-39	1442155	1925561	2040606	2020014	72609	109460	123865	131941
40-44	1207346	1435625	1859045	1990650	74672	100293	152224	173741
45-49	1051098	1164364	1285384	1857816	81767	89127	120376	183167
50-54	943052	984787	1056348	1310190	59243	72490	92523	123900
55-59	650116	817929	856362	945424	41464	56654	67697	84895
60+	810821	978150	1171310	1420181	63462	102547	157049	223309
사별	107010	97447	91147	80616	974947	1098434	1270074	1453088
15-24	52	20	9	3	215	84	30	10
25-29	571	336	231	107	5048	3653	2620	1541
30-34	2076	1382	948	596	18966	16313	13238	11159
35-39	4107	3918	3173	2099	42943	52668	48530	42128
40-44	7662	7091	7513	5955	80959	89574	112911	107757
45-49	10544	8841	7810	8082	132941	115259	126319	158359
50-54	14808	11412	9605	8286	152008	148417	155107	173336
55-59	16523	15967	13547	10920	149740	163687	161159	170108
60+	50667	48480	48311	44568	389127	508779	650160	788690
이혼	65383	95120	123864	168465	106732	144680	193887	245906
15-24	85	46	27	12	378	273	181	114
25-29	2413	2770	3227	3227	5031	4881	4693	3702
30-34	9236	11558	12882	16330	15073	16749	17559	19123
35-39	14321	23767	29129	34698	22844	37805	46352	52947
40-44	16024	24765	37990	50196	22063	31894	51436	61805
45-49	11001	15474	19974	35110	19655	22333	31291	49232
50-54	6494	8171	9951	14543	11206	14422	19195	26658
55-59	3458	5244	6236	8113	5624	8053	9999	12962
60+	2351	3325	4448	6236	4858	8270	13181	19363
미혼	342413	350937	357969	361590	648551	836667	1003264	1093270
15-24	259480	284090	295585	301369	411632	492198	539689	560403
25-29	42389	21828	13514	5300	160531	225381	302463	325717
30-34	19346	14316	10696	7629	45666	65388	82758	104489
35-39	11218	17079	19884	22341	16763	32768	44873	55430
40-44	4585	6465	9426	11793	6406	10560	18632	23920
45-49	2188	2767	3358	5509	3754	4798	7281	12146
50-54	1241	1433	1655	2271	1521	2000	2704	3805
55-59	835	1242	1460	1876	802	1113	1355	1731
60+	1131	1717	2391	3502	1476	2461	3869	5629

제 5장 요약 및 제언

1960년 이후 3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가 1.7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총가구수는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가구수가 5.6명에서 3.7명으로 줄어들었다. 가구규모의 축소현상을 가족인구학자들은 주로 세가지 가설로 설명하려 한다. 그 첫째가 선호이론(preference hypothesis)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고 이 프라이버시를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소가족을 선호하게 됨에 가구규모가 작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가족구조 이론(family structure hypothesis)으로서 출산력, 사망력, 그리고 결혼양상의 변화가 대가구를 형성하고 사는 것 보다는 작은 규모의 가구로 독립하는 쪽으로 가족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 이론은 독립가구를 이루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지불가능성(affordability)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수준의 향상, 주택임대비의 실질적인 감소, 대가구의 「규모의 경제」가 갖는 효과의 감소 등이 가구수의 증가를 가져 왔다는 경제적 이론(economic hypothesis)이다.

이 세가지 이론 각각으로 우리나라의 가구변동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첫번째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두번째 이론은 출산력, 사망력, 혼인력이라는 인구학적인 변화가 직계가족 형태의 가구를 형성하는 쪽보다는 분리 쪽으로 왜 작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세번째 이론은 대가구의 분리를 경제적인 이유로만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이론에 한계선을 긋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 세가지 이론이 상호배제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가지 이론을 상호보완하는 방향으로 종합하여 한 사회의 가구변동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 세가지 가설적인 이론이 모두 다 미시적으로, 다시 말해서 개인의 수준으로 환원하여 사회 전반적인 변동의 경향을 설명하려는데 있다. 한 사회의 구체적인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가구구조와 이에 따른 가구수의 격증도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겪은 전반적인 변화의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 가구의 규모축소와 구조변화는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가 가구의 탈가족화 현상이다. 이 탈가족화는 미혼의 자녀가 부모를 떠나 단독으로 혹은 다른 가족원과 함께 가구를 형성하면서도 본가와 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단순

한 가족의 거주지 분리라는 형태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족이 더이상 젊은 가족원을 묶어두지 못하여 가족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본가에 다시 합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후자는 그런 전제 없이 이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로 본다면 가구규모를 축소시키고 가구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이 탈가족화 현상은 가족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인구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인구이동은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사회전반적인 변화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촌향도의 인구이동은 도시가구의 규모축소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농촌가구의 규모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도시·농촌간 가구규모상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었다.

가구규모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출산력의 감소를 비롯한 인구동태율의 변동이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부인의 평균자녀수가 5명 대에서 현재의 2명대로 떨어진 것만 보아도 출산력의 감소가 평균가구원수의 감소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쳤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평균초혼연령의 상승은 출산력의 감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구규모의 축소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미혼상태의 연장 자체가 가구원 증가의 지연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가구주율은 1960년 이후로 모든 연령층에서 꾸준히 감소되어 왔는데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젊은 연령층의 탈가족현상과 출산력 저하에 의한 소가족화 현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가구주율의 증가는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연령별로는 미혼의 젊은 연령층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구주율이 지금까지의 추세로 변화한다면 우리나라의 가구수는 1990년 현재의 1,179.4만 가구에서 2000년에 1,548.9만 가구로 2005년에는 1,708.9만 가구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가구수는 인구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평균가원수가 계속 감소하는데 1990년 현재의 3.63명이 2000년에는 3.02 명으로 줄고 2005년에는 2.8 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1990년 부터 2005년 까지 매년 증가되는 가구수는 40-50만 가구로서 현재의 주택보유율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의 주택을 매년 건설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들이 합리적인 주택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가구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맞추어서 신축하는 주택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단독가구나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런 인구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장래의 우리나라 가구변동에서 움직일 수 없는 뚜렷한 전망 중의 하나가 노인가구의 증가이다. 노인가구는 대부분이 자녀들이 장성하여 떠나간 소위 “빈 둥지(empty nest)” 가구로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정부가 앞으로 국민복지의 향상을 꾀하는 정책을 지향한다면 빠뜨릴 수 없는 취약계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노인가구 중에 여자가 가구주인 가구 즉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혹은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사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가구가 반드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인가구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부양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기는 해도 자녀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년복지정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더 깊이있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분석은 기존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존자료 중에서 센서스보고서는 가장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발간된 보고서 외에 센서스조사에 포함된 내용을 더 상세하게 집계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풍부하고 뚜렷한 전망을 내릴 수 있고, 정책수립에 좋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추계작업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1990년의 센서스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1990년 센서스보고서에서 발표되는 수치가 이 추계작업에서 사용한 가구주율과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 센서스 결과가 발표되어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상세하고 풍부한 전망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구주율법은 앞서서도 지적한 것처럼 일정시점의 가구수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 일정기간 중에 몇 가구가 소멸 혹은 해체되는가, 새로 형성되는 가구는 얼마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 방면에 대한 차후의 연구는 가구변동의 동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 및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 (1963), 『1960 인구주택국세조사보고』
- 경제기획원 (1969), 1966 『인구센서스보고』
- 경제기획원 (1972), 1970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 경제기획원 (1977), 1975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 경제기획원 (1982),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
- 경제기획원 (1987), 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
- 김 남일 (1988)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 및 가구추계”, 미발표
- 박 병태, 문 현상 (1981), 『전국가구 및 결혼수 추계』,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최 봉호 (1990), “우리나라 가족 및 가구구조의 변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257-291쪽.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6), 『한국의 가족구조의 변화』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 日本總理府統計局 (1984), 『我が國の世帯構成とその變動』
- Bongaarts, J. (1983), “The formal demography of families and households : An overview”, *IUSSP Newsletter*, NO.17
- Bongaarts, J.와 T. K. Burch 편 (1987), *Family Demography -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 Beresford, J. C.와 A. H. Rivlin (1966), “Privacy, Poverty and Old Age”, *Demography*, 3, 247-58.
- Burch, T. K. (1970), “Some Demographic Determinants of Average Household Size: An Analytic Approach”, *Demography*, 7, 61-70.
- Burch, T. K.(1979), Household and family demography: A bibliographic essay, *Population Index*, 43(2)

- Kobrin, F. E. (1976), "The Fall in Household Size and the Rise of the Primary Individual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13, 127-38.
- Carliner, G. (1975), "Determinant of Household Head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28-38.
- De Vos, S.와 A. Palloni (1989),"Formal Models and Methods for the Analysis of Kinship and Household Organization", *Population Index*, 50(2), 174-95.
- Kono, S. (1987), "The Headship Rate Method for Projecting Households", *Family Demography -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J. Bongaarts, T. K. Burch, 와 K. W. Wachter 편 (1987), 287-308쪽
- Pampel, F. C (1983), "Changes in the Propensity to Live Alone : Evidence from Consecutive Cross Sectional Surveys, 1960-76", *Demography*, 20, 433-47.
- Pitkin, J. R.과 G. Masnick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Heads and Non-Heads in the Household Population : An Extension of the Headship Rate Method", *Family Demography -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J. Bongaarts, T. K. Burch, 와 K. W. Wachter 편 (1987), 309-326쪽.
- United Nations, Statistical Office (1979),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1970 Population Censuses*
- United Nations (1973),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Methods of Projecting Households and Families (Manuals on methods estimating population MANUAL VII)*
- United Nations (1958), *Multilingual Demographic Dictionary, English Section*
- Yi, Z. (1986), "Changes in Family Structure in China : A Simulation Stud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2(4), 675-703.

부록 I. 성별, 연령별 장래 인구, 1990-2005

성\연령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남자								
15-24	4502130	4484562	4456550	4405564	4353825	4316234	4282126	4243147
25-29	2181042	2135984	2102010	2089969	2125722	2183881	2238198	2287339
30-34	2089064	2145283	2192594	2216520	2200902	2157557	2113936	2081251
35-39	1554173	1677090	1780028	1899382	2003630	2063014	2119931	2167999
40-44	1284426	1313980	1339378	1360133	1412156	1524253	1646490	1749143
45-49	1121953	1116916	1124026	1153922	1199658	1244120	1274305	1300719
50-54	1020714	1043668	1073602	1081451	1074606	1070288	1067289	1076097
55-59	748808	803210	850318	897177	935415	955395	978768	1008678
60 +	1304632	1349486	1406524	1469837	1541258	1624949	1713861	1806453
여자								
15-24	4250509	4226462	4195651	4146821	4098894	4061771	4023507	3980248
25-29	2095146	2055139	2021409	2001850	2024613	2070647	2119146	2165490
30-34	2007325	2059943	2103637	2129698	2119353	2081965	2042358	2009017
35-39	1463766	1590766	1700024	1823339	1931579	1992287	2044931	2088707
40-44	1219208	1248287	1272307	1289897	1337245	1447912	1574223	1682956
45-49	1280199	1069432	1078088	1110865	1156628	1200300	1229287	1253393
50-54	1018077	1042666	1069181	1077102	1069703	1057327	1047121	1056140
55-59	855540	889509	915705	940475	966462	987149	1011373	1037476
60 +	1995320	2068453	2149987	2234386	2320599	2411952	2506439	2601246

부록 I. 성별, 연령별 장래 인구, 1990-2005

성\연령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15-24	4179001	4085691	3992371	3938518	3872866	3823244	3726495	3672359
25-29	2313330	2302935	2263346	2193904	2119134	2044534	2005328	2009095
30-34	2070284	2106712	2165355	2220180	2269840	2296460	2286822	2248036
35-39	2192915	2178555	2136598	2094280	2062713	2052653	2089590	2148521
40-44	1867983	1972122	2032293	2089996	2138841	2164782	2151695	2111154
45-49	1322645	1375122	1486402	1607561	1709680	1827723	1931458	1992232
50-54	1106921	1152741	1197228	1227912	1255122	1277929	1330343	1439860
55-59	1017553	1012549	1009927	1008877	1019569	1050850	1096148	1139884
60 +	1903712	1999860	2089768	2187120	2293459	2383940	2460097	2532567
여자								
15-24	3916280	3822588	3728662	3659789	3595150	3532152	3447485	344550
25-29	2191387	2182421	2143038	2071310	1995006	1921185	1883034	1885965
30-34	1989816	2012787	2058937	2107538	2153977	2180023	2171298	2132222
35-39	2114971	2104986	2068064	2028921	1995996	1977156	2000299	2046512
40-44	1805658	1913440	1974117	2026787	2070610	2097043	2087438	2051043
45-49	1271189	1318465	1428436	1553853	1661884	1783740	1890845	1951376
50-54	1088847	1134244	1177509	1206328	1230498	1248503	1295621	1404581
55-59	1045432	1038433	1026591	1016975	1026240	1058499	1103011	1145313
60 +	2697302	2796037	2894156	2998116	3103507	3191828	3267465	3337371

부록 II. 성별, 연령별, 가구원의 혼인상태의 분포, 1990-2005

연령\혼인상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남자									
15-24	기혼	241.2	233.7	226.4	219.3	212.5	205.8	199.4	193.2
	사별	0.2	0.1	0.1	0.1	0.1	0.1	0.1	0.0
	이혼	0.3	0.2	0.2	0.2	0.2	0.1	0.1	0.1
	미혼	758.4	766.0	773.3	780.4	787.3	794.0	800.5	806.7
25-29	기혼	960.5	965.2	969.3	972.9	976.0	978.7	981.1	983.1
	사별	0.5	0.5	0.4	0.4	0.3	0.3	0.3	0.2
	이혼	2.1	2.2	2.2	2.3	2.3	2.4	2.4	2.5
	미혼	37.0	32.2	28.1	24.5	21.4	18.6	16.2	14.2
30-34	기혼	982.7	983.3	983.9	984.4	984.9	985.3	985.7	986.0
	사별	1.2	1.1	1.0	0.9	0.8	0.7	0.7	0.6
	이혼	5.2	5.4	5.6	5.8	6.0	6.2	6.4	6.6
	미혼	10.9	10.2	9.5	8.9	8.3	7.7	7.2	6.7
35-39	기혼	979.9	979.4	978.9	978.3	977.8	977.3	976.7	976.2
	사별	2.8	2.6	2.4	2.3	2.1	2.0	1.9	1.7
	이혼	9.7	10.2	10.7	11.1	11.6	12.1	12.5	13.0
	미혼	7.6	7.8	8.0	8.3	8.5	8.7	8.9	9.1
40-44	기혼	977.1	976.5	975.9	975.3	974.7	974.0	973.3	972.7
	사별	6.2	5.9	5.6	5.3	5.1	4.8	4.6	4.4
	이혼	13.0	13.7	14.5	15.3	16.0	16.8	17.8	18.3
	미혼	3.7	3.9	4.0	4.1	4.3	4.4	4.5	4.7
45-49	기혼	977.9	977.8	977.7	977.6	977.5	977.3	977.1	976.9
	사별	9.8	9.3	8.8	8.3	7.9	7.4	7.0	6.6
	이혼	10.2	10.8	11.3	11.9	12.5	13.0	13.5	14.1
	미혼	2.0	2.1	2.2	2.2	2.3	2.3	2.4	2.4
50-54	기혼	976.7	977.2	977.8	978.3	978.7	979.1	979.5	979.8
	사별	15.3	14.4	13.6	12.8	12.1	11.4	10.7	10.1
	이혼	6.7	7.0	7.3	7.6	7.8	8.1	8.4	8.7
	미혼	1.3	1.3	1.3	1.4	1.4	1.4	1.5	1.5
55-59	기혼	969.0	970.0	970.9	971.7	972.5	973.3	974.0	974.6
	사별	24.6	23.4	22.2	21.1	20.0	19.0	18.0	17.1
	이혼	5.2	5.4	5.6	5.8	6.0	6.2	6.5	6.7
	미혼	1.2	1.3	1.3	1.4	1.4	1.5	1.5	1.6
60+	기혼	937.4	939.8	942.0	944.1	946.2	948.1	950.0	951.7
	사별	58.6	56.1	53.6	51.3	49.1	47.0	45.0	43.0
	이혼	2.7	2.8	2.9	3.0	3.1	3.2	3.3	3.4
	미혼	1.3	1.4	1.5	1.5	1.6	1.7	1.7	1.8

부록 II. 성별, 연령별, 가구원의 혼인상태의 분포추정, 1990-2005

연령\혼인상태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15-14	기혼	187.1	181.3	175.6	170.1	164.8	159.7	154.7	149.9
	사별	0.0	0.0	0.0	0.0	0.0	0.0	0.0	0.0
	이혼	0.1	0.1	0.1	0.1	0.1	0.0	0.0	0.0
	미혼	812.8	818.6	824.3	829.8	835.1	840.3	845.3	850.1
25-29	기혼	984.9	986.5	987.8	989.0	990.0	990.9	991.6	992.3
	사별	0.2	0.2	0.2	0.2	0.1	0.1	0.1	0.1
	이혼	2.5	2.6	2.6	2.7	2.7	2.8	2.8	2.9
	미혼	12.4	10.8	9.4	8.2	7.1	6.2	5.4	4.7
30-34	기혼	986.3	986.6	986.8	987.0	987.2	987.4	987.5	987.6
	사별	0.6	0.5	0.5	0.4	0.4	0.4	0.3	0.3
	이혼	6.8	7.0	7.2	7.5	7.7	7.9	8.1	8.3
	미혼	6.3	5.9	5.5	5.1	4.8	4.4	4.1	3.7
35-39	기혼	975.6	975.1	974.5	973.9	973.3	972.8	972.2	971.7
	사별	1.6	1.5	1.4	1.3	1.2	1.2	1.1	1.0
	이혼	13.5	13.9	14.4	14.8	15.3	15.8	16.2	16.7
	미혼	9.3	9.5	9.7	9.9	10.1	10.3	10.5	10.8
40-44	기혼	972.0	971.3	970.6	969.9	969.2	968.7	967.7	967.0
	사별	4.1	3.9	3.7	3.6	3.4	003.2	003.0	002.9
	이혼	19.1	19.9	20.6	21.4	22.1	22.9	23.6	24.4
	미혼	4.8	4.9	5.7	5.2	5.3	5.7	5.6	5.7
45-49	기혼	976.6	976.4	976.1	975.8	975.5	975.1	974.8	974.5
	사별	6.3	5.9	5.6	5.3	5.0	4.7	4.5	4.2
	이혼	14.6	15.2	15.7	16.3	16.8	17.3	17.9	18.4
	미혼	2.5	2.6	2.6	2.7	2.7	2.8	2.8	2.9
50-54	기혼	980.1	980.3	980.5	980.7	980.9	981.0	981.1	981.2
	사별	009.5	008.9	008.4	007.9	007.4	007.0	006.6	006.2
	이혼	9.0	9.2	9.5	9.8	10.1	10.3	10.6	10.9
	미혼	1.5	1.5	1.6	1.6	1.6	1.7	1.7	1.7
55-59	기혼	975.2	975.8	976.3	976.8	977.2	977.7	978.0	978.4
	사별	16.3	15.4	14.7	13.9	13.2	12.5	11.9	11.3
	이혼	6.9	7.1	7.3	7.5	7.8	8.0	8.2	8.4
	미혼	1.6	1.7	1.7	1.8	1.8	1.9	1.9	1.9
60+	기혼	953.4	955.0	956.6	958.0	959.4	960.7	962.0	963.2
	사별	41.2	39.4	37.7	36.1	34.5	33.0	31.6	30.2
	이혼	3.5	3.6	3.7	3.8	3.9	4.0	4.1	4.2
	미혼	1.9	2.0	2.0	2.1	2.2	2.2	2.3	2.4

부록 II. 성별, 연령별, 가구원의 혼인상태의 분포추정, 1990-2005

연령\혼인상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여자									
15-24	기혼	20.4	18.2	16.3	14.6	13.0	11.7	10.4	9.3
	사별	0.5	0.4	0.3	0.3	0.2	0.2	0.1	0.1
	이혼	0.9	0.8	0.7	0.7	0.6	0.6	0.5	0.5
	미혼	978.2	980.6	982.6	984.5	986.2	987.6	988.9	990.1
25-29	기혼	231.8	217.6	204.2	191.7	179.9	168.9	158.6	148.9
	사별	22.7	20.3	18.2	16.2	14.5	13.0	11.6	10.4
	이혼	22.7	21.5	20.4	19.3	18.3	17.3	16.4	15.6
	미혼	722.8	740.6	757.3	772.8	787.3	800.8	813.4	825.2
30-34	기혼	456.1	447.0	438.0	429.2	420.5	411.9	403.6	395.3
	사별	129.4	122.3	115.6	109.2	103.2	097.4	092.0	086.9
	이혼	102.9	102.3	101.8	101.2	100.6	100.1	099.5	100.0
	미혼	311.6	328.4	344.7	360.5	375.8	390.6	405.0	418.8
35-39	기혼	468.0	468.7	469.3	469.8	470.2	470.4	470.5	470.5
	사별	276.8	266.0	255.6	245.5	235.7	226.3	217.3	208.5
	이혼	147.2	150.4	153.6	156.6	159.6	162.5	165.3	168.0
	미혼	108.0	114.9	121.6	128.1	134.5	140.8	147.0	153.0
40-44	기혼	405.6	411.1	416.5	421.7	426.8	431.7	436.5	441.1
	사별	439.8	428.5	417.4	406.6	396.0	385.7	375.4	365.4
	이혼	119.8	123.4	127.0	130.5	133.9	137.3	140.6	143.9
	미혼	34.8	37.0	39.1	41.3	43.4	45.5	47.5	49.6
45-49	기혼	343.4	352.1	360.6	368.9	377.0	385.0	392.7	400.3
	사별	558.3	545.8	533.5	521.4	509.5	497.8	486.4	475.2
	이혼	82.5	85.4	88.2	92.0	93.7	96.5	99.2	101.8
	미혼	15.8	16.8	17.8	18.8	19.7	20.7	21.7	22.7
50-54	기혼	264.5	272.9	281.3	289.4	297.5	305.4	313.3	320.9
	사별	678.7	667.7	656.9	646.3	635.8	625.4	615.1	605.0
	이혼	50.0	52.2	54.4	56.5	58.6	60.8	62.9	65.0
	미혼	6.8	7.1	7.5	7.8	8.1	8.4	8.8	9.1
55-59	기혼	209.8	217.4	224.9	232.3	239.6	246.9	254.0	261.1
	사별	757.7	748.6	739.6	730.7	721.9	713.2	704.6	696.0
	이혼	28.5	29.8	31.1	32.5	33.8	35.1	036.4	37.7
	미혼	4.1	4.2	4.4	4.5	4.7	4.9	5.0	5.2
60+	기혼	138.3	143.7	149.0	154.3	159.6	164.9	170.1	175.2
	사별	847.9	841.8	835.8	829.8	823.8	817.9	812.0	806.1
	이혼	10.6	11.1	11.7	12.2	12.8	13.3	13.8	14.4
	미혼	3.2	3.4	3.5	3.7	3.8	4.0	4.1	4.3

부록 II. 성별, 연령별, 가구원의 혼인상태의 분포추정, 1990-2005

연령\혼인상태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여자									
15-24	기혼	8.3	7.5	6.7	6.0	5.3	4.8	4.3	3.8
	사별	0.1	0.1	0.1	0.0	0.0	0.0	0.0	0.0
	이혼	0.4	0.4	0.3	0.3	0.3	0.3	0.2	0.2
	미혼	991.2	992.1	992.9	993.7	994.4	995.0	995.5	996.0
25-29	기혼	139.7	131.2	123.2	115.6	108.6	101.9	095.7	089.9
	사별	9.3	8.3	7.4	6.6	5.9	5.3	4.7	4.2
	이혼	14.8	14.0	13.3	12.6	11.9	11.3	10.7	10.2
	미혼	836.2	846.5	856.1	865.2	873.6	881.5	888.8	895.7
30-34	기혼	387.3	379.3	371.6	364.0	356.5	349.2	342.0	335.0
	사별	82.1	77.6	73.3	69.2	65.4	61.7	58.3	55.1
	이혼	98.3	97.8	97.2	96.6	96.0	95.5	94.9	94.4
	미혼	432.3	445.4	458.0	470.3	482.1	493.6	504.8	515.6
35-39	기혼	470.4	470.2	469.9	469.5	469.0	468.5	467.8	467.1
	사별	200.1	191.9	184.1	176.6	169.3	162.3	155.6	149.2
	이혼	170.7	173.3	175.8	178.3	180.7	183.0	185.3	187.5
	미혼	158.9	164.6	170.2	175.7	181.0	186.2	191.3	196.3
40-44	기혼	445.6	449.9	454.1	458.2	462.1	465.9	469.6	473.1
	사별	355.7	346.2	336.8	327.7	318.9	310.2	301.7	293.4
	이혼	147.1	150.3	153.5	156.5	159.6	162.5	165.4	168.3
	미혼	51.6	53.6	55.6	57.5	59.5	61.4	63.3	65.1
45-49	기혼	407.7	414.9	422.0	428.8	435.5	442.1	448.4	454.6
	사별	464.2	453.4	442.8	432.4	422.3	412.3	402.6	393.0
	이혼	104.5	107.1	109.7	112.3	114.8	117.3	119.8	122.2
	미혼	23.6	24.6	25.5	26.5	27.4	28.3	29.2	30.2
50-54	기혼	328.5	336.0	343.3	350.5	357.6	364.5	371.4	378.1
	사별	595.0	585.2	575.5	565.9	556.5	547.2	538.0	529.0
	이혼	67.1	69.2	71.2	73.3	75.3	77.3	79.4	81.4
	미혼	9.4	9.7	10.0	10.4	10.7	11.1	11.3	11.6
55-59	기혼	268.1	275.0	281.8	288.6	295.3	301.8	308.4	314.8
	사별	687.6	679.2	670.9	662.7	654.6	646.6	638.6	630.7
	이혼	39.0	40.3	41.6	42.9	44.2	45.5	46.8	48.1
	미혼	5.3	5.5	5.6	5.8	6.0	6.1	6.3	6.4
60+	기혼	180.4	185.5	190.5	195.6	200.6	205.5	210.5	215.3
	사별	800.3	794.5	788.8	783.1	777.4	771.7	766.1	760.6
	이혼	14.9	15.5	16.0	16.5	17.1	17.6	18.1	18.7
	미혼	4.4	4.6	04.7	4.8	5.0	5.1	5.3	5.4

부록 III.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수, 1990-2005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남자								
기혼								
15-24	82544	81101	79469	77436	75408	73642	71948	70189
25-29	1101855	1088831	1080437	1082546	1108990	1147005	1182977	1216176
30-34	1742957	1795846	1841391	1867319	1859793	1828535	1796683	1773807
35-39	1442155	1558257	1655952	1769051	1868200	1925561	1980609	2027366
40-44	1207346	1235727	1260166	1280199	1329633	1435625	1551174	1648267
45-49	1051098	1046222	1052694	1080472	1123038	1164364	1192283	1216634
50-54	943052	963561	990428	996844	989669	984787	981085	988194
55-59	650116	695482	734253	772545	803166	817929	835451	858382
60+	810821	833550	863344	896457	933923	978150	1024774	1072814
사별								
15-24	52	44	36	30	24	20	17	14
25-29	571	503	445	398	364	336	310	284
30-34	2076	1953	1828	1693	1539	1382	1240	1118
35-39	4107	4149	4123	4118	4066	3918	3768	3607
40-44	7662	7459	7235	6990	6905	7091	7287	7364
45-49	10544	9927	9447	9171	9015	8841	8562	8264
50-54	14808	14238	13771	13043	12186	11412	10700	10143
55-59	16523	16766	16790	16758	16527	15967	15473	15083
60+	50667	49718	49158	48732	48474	48480	48505	48497
이혼								
15-24	85	76	67	59	52	46	40	36
25-29	2413	2432	2461	2514	2626	2770	2912	3052
30-34	9236	9884	10511	11040	11376	11558	11723	11936
35-39	14321	16226	18042	20127	22157	23767	25402	26981
40-44	16024	17384	18730	20046	21879	24765	27993	31058
45-49	11001	11542	12208	13140	14292	15474	16516	17538
50-54	6494	6908	7380	7709	7933	8171	8416	8755
55-59	3458	3852	4227	4616	4975	5244	5539	5877
60+	2351	2500	2676	2869	3082	3325	3586	3861
미혼								
15-24	259480	265810	271446	275553	279443	284090	288844	293143
25-29	42389	36346	31314	27257	24270	21828	19583	17518
30-34	19346	18588	17773	16808	15612	14316	13119	12081
35-39	11218	12461	13603	14918	16162	17079	18000	18868
40-44	4585	4867	5141	5403	5800	6465	7205	7890
45-49	2188	2240	2316	2441	2603	2767	2904	3035
50-54	1241	1295	1359	1395	1413	1433	1455	1493
55-59	835	926	1012	1101	1182	1242	1308	1384
60+	1131	1224	1330	1445	1573	1717	1873	2037

부록 III.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수, 1990-2005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기혼								
15-24	68038	65453	62916	61042	59018	57272	54861	53121
25-29	1236965	1238045	1223027	1191353	1156210	1120611	1103985	1110802
30-34	1769209	1805046	1860005	1911809	1959266	1986877	1983039	1953723
35-39	2052417	2040606	2002797	1964491	1936128	1927836	1963610	2020014
40-44	1760596	1859045	1916005	1970587	2016761	2041280	2028937	1990650
45-49	1236749	1285384	1388908	1501561	1596326	1705854	1801919	1857816
50-54	1015447	1056348	1095905	1122718	1146262	1165702	1212038	1310190
55-59	863280	856362	851451	847850	854066	877392	912191	945424
60+	1122807	1171310	1215353	1262918	1314798	1356743	1389821	1420181
사별								
15-24	11	9	7	6	5	4	3	3
25-29	259	231	205	178	155	134	118	107
30-34	1018	948	892	838	784	726	662	596
35-39	3414	3173	2912	2671	2461	2291	2182	2099
40-44	7481	7513	7365	7204	7013	6751	6382	5955
45-49	7945	7810	7982	8162	8207	8295	8288	8082
50-54	9810	9605	9379	9044	8691	8320	8143	8286
55-59	14393	13547	12780	12076	11543	11253	11103	10920
60+	48481	48311	47887	47541	47289	46626	45641	44568
이혼								
15-24	31	27	24	21	18	16	14	12
25-29	3164	3227	3248	3223	3185	3143	3152	3227
30-34	12265	12882	13653	14423	15180	15798	16171	16330
35-39	28306	29129	29558	29942	30446	31248	32778	34698
40-44	34576	37990	40680	43409	46033	48219	49544	50196
45-49	18523	19974	22362	25017	27490	30331	33047	35110
50-54	9281	9951	10631	11206	11762	12288	13115	14543
55-59	6098	6236	6384	6541	6774	7149	7630	8113
60+	4152	4448	4735	5046	5383	5689	5965	6236
미혼								
15-24	295528	295585	295328	297741	299058	301414	299805	301369
25-29	15509	13514	11625	9863	8338	7041	6044	5300
30-34	11239	10696	10281	9857	9423	8915	8300	7629
35-39	19550	19884	19954	20003	20139	20475	21286	22341
40-44	8677	9426	9987	10552	11086	11511	11730	11793
45-49	3158	3358	3710	4100	4452	4858	5238	5509
50-54	1562	1655	1747	1821	1891	1955	2067	2271
55-59	1432	1460	1492	1525	1576	1660	1768	1876
60+	2212	2391	2567	2757	2963	3154	3329	3502

부록 III.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수, 1990-2005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여자							
기혼								
15-24	8576	7995	7424	6849	6307	5812	5344	4901
25-29	51475	50108	48750	47614	47369	47542	47645	47582
30-34	66829	68579	69996	70788	70338	68962	67489	66203
35-39	72609	80655	88036	96369	104122	109460	114441	118991
40-44	74672	78468	82027	85231	90498	100293	111538	121896
45-49	81767	70554	73378	77917	83513	89127	93781	98151
50-54	59243	62864	66694	69422	71150	72490	73919	76686
55-59	41464	44725	47691	50660	53770	56654	59805	63138
60+	63462	70033	77305	85129	93489	102547	112257	122516
사별								
15-24	215	179	149	123	101	84	69	56
25-29	5048	4680	4336	4034	3822	3653	3487	3316
30-34	18966	18767	18469	18010	17256	16313	15393	14560
35-39	42943	45770	47937	50353	52207	52668	52845	52732
40-44	80959	81780	82208	82172	83962	89574	95926	100983
45-49	132941	109368	108559	110122	112857	115259	116149	116509
50-54	152008	153793	155781	155009	152043	148417	145148	144559
55-59	149740	154021	156858	159369	162008	163687	165887	168320
60+	389127	410362	433580	457712	482545	508779	536009	563633
이혼								
15-24	378	357	336	313	292	273	254	236
25-29	5031	4946	4859	4793	4816	4881	4940	4982
30-34	15073	15699	16262	16691	16832	16749	16636	16562
35-39	22844	25885	28802	32121	35337	37805	40202	42495
40-44	22063	23558	25006	26367	28393	31894	35935	39768
45-49	19655	17109	17947	19216	20763	22333	23680	24970
50-54	11206	12023	12890	13553	14025	14422	14838	15527
55-59	5624	6129	6600	7076	7578	8053	8571	9121
60+	4858	5425	6055	6737	7471	8270	9133	10051
미혼								
15-24	411632	430133	447548	462523	477001	492198	506769	520199
25-29	160531	170580	180769	191945	207240	225381	244405	263780
30-34	45666	50394	55089	59462	62861	65388	67720	70141
35-39	16763	19764	22799	26276	29792	32768	35748	38692
40-44	6406	7055	7704	8337	9195	10560	12145	13700
45-49	3754	3360	3615	3962	4373	4798	5181	5557
50-54	1521	1640	1766	1865	1937	2000	2065	2168
55-59	802	868	928	989	1053	1113	1179	1250
60+	1476	1640	1822	2019	2231	2461	2709	2973

부록 III.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수, 1990-2005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여자								
기혼								
15-24	4463	4027	3627	3283	2971	2687	2411	2149
25-29	46975	45564	43511	40840	38149	35587	33750	32673
30-34	65364	65888	67140	68439	69636	70144	69514	67903
35-39	122582	124056	123865	123437	123290	123936	127188	131941
40-44	133617	144578	152224	159409	166025	171333	173698	173741
45-49	102092	108509	120376	133981	146515	160681	173925	183167
50-54	81242	86885	92523	97150	101487	105378	111832	123900
55-59	65410	66733	67697	68757	71078	75044	79987	84895
60+	133380	144942	157049	170070	138797	197105	210151	223309
사별								
15-24	46	37	30	24	20	16	13	10
25-29	3118	2880	2620	2342	2083	1851	1672	1541
30-34	13861	13473	13238	13011	12765	12398	11847	11159
35-39	52136	50641	48530	46421	44504	42944	42305	42128
40-44	106658	111233	112911	114026	114555	114063	111600	107757
45-49	116232	118567	126319	135106	142056	149874	156146	158359
50-54	147152	151340	155107	156863	157943	158177	162009	173336
55-59	167764	164822	161159	157899	157585	160748	165658	170108
60+	591835	620924	650160	680985	712409	740131	765044	788690
이혼								
15-24	217	199	181	166	152	139	127	114
25-29	4967	4866	4693	4448	4196	3953	3786	3702
30-34	16596	16979	17559	18166	18760	19178	19289	19123
35-39	44485	45726	46352	46877	47497	48417	50368	52947
40-44	44123	48303	51436	54456	57320	59762	61194	61805
45-49	26164	28009	31291	35069	38611	42629	46446	49232
50-54	16588	17884	19195	20309	21375	22356	23895	26658
55-59	9522	9786	9999	10227	10644	11313	12136	12962
60+	11029	12077	13181	14374	15639	16881	18112	19363
미혼								
15-24	530294	535503	539689	546634	553489	559907	562117	560403
25-29	281100	294013	302463	305571	306991	307767	313473	325717
30-34	72970	77356	82758	88427	94173	99154	102582	104489
35-39	41401	43433	44873	46194	47589	49271	52011	55430
40-44	15473	17225	18632	20020	21368	22574	23405	23920
45-49	5915	6427	7281	8267	9215	10293	11339	12146
50-54	2323	2512	2704	2869	3028	3175	3402	3805
55-59	1299	1330	1355	1381	1433	1519	1625	1731
60+	3253	3553	3869	4210	4571	4924	5274	5629